



문화매일



제 1413호

2023/6/26 / Mon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서울시, 국가보훈부와 손잡고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보훈정책 추진

오세훈 시장,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업무협약으로 보훈문화 확산 상호협력 추진

서울시와 국가보훈부는 22일 9시 50분 서울시장에서 오세훈 시장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청년부상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정책 추진 및 보훈문화 확산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국가보훈부는 ▲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 협력 ▲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제대군인 지원 협력 ▲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 ▲ 양 기관 추진 제반사업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입은 장병들이 사회에 복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공식 제안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5~10% 취업 가산점을 받고 있으나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한 부상 제대군인은 장애보상금 등 일시적인 지원금 외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 제대군인과 비교하여 부상 제대군인은 군 복무 중 장애(노동능력 상실 또는 감소)를 입은 만큼 이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및 보훈차원에서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이

업·취업까지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대학교 내 취업지원센터와 협력, '히어로즈 인 캠퍼스(가칭)'를 운영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제대군인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이들을 체계적·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보훈부는 최근 예비군훈련 참여로 인한 감점 사례를 계기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방안인 '히어로즈 인 캠퍼스'를 추진 중이다.

이날 협약식 이후 오세훈 시장과 박민식 장관은 서울도서관 내 서울기록문화관을 찾아, 참전유공자와 부상 제대군인들에 대한 기록물을 관람하여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서울시와 국가보훈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제대군인을 위한 더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약속하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서울시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개소하는 등 1년 넘게 부상 제대군인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결과,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



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여 이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청년 부상 제대군인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원스톱 상담창구인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국가보훈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 부상 제대군인의 건강한 삶과 공정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5일, 서울시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개소했다.

서울시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는 유공자 신청 지원, 관련 법률 상담, 부상 관련 심리재활지원과 자조모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 일자리센터, 청년 일자리 사업 연계 등 청년 부상 제대군인들의 장

점부터 한국어 배움으로써 이루고 싶은 각자의 꿈과 미래에 대한 한국어 발표를 경청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미래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기 위하여 한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고등학생, 한국어 통번역가를 꿈꾸고 있는 한국어 전공 대학생, 올해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IT 기업 직장인 그리고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해 베트남 현지 한국기업에 입사한 직장인 등 발표자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경험담이 베트남 내 높은 한국어 열기를 보여줬다.

발표를 들은 김건희 여사는 "한국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말하는 내용의 정서도 한국분들이 것처럼 느껴져 너무 친근감을 갖게 됐다"며 감탄하기도 했다.

또한 교육자를 대표하여 하노이 국가대교수로부터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유학 등 진로에 대한 의견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행사에 앞서 대통령 부부는 하노이 국가대 분관에서 레 꾸언 하노이 국가대학교 총장, 응웬 켄 선 베트남 교육훈련부 장관 등과 환담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은 행사 준비를 지원해 준 하노이 국가대학교에 감사를 표명하면서, "베트남 최고 학교인 하노이 국가대학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하노이 국가대학의 야심찬 발전계획이 곧 실현되리라 기대한다"며 "한-베트남 양국 학생·연구자들의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현지시간 6월 22일 오후, 하노이 국가대학교에서 개최된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와의 대화'에 참석했다.

'한국어로 키워나가는 우리들의 꿈'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과 교육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함께했다.

대통령 부부는 행사장인 별관 1층에 입장하면서 하노이 외국어대학교 부설 중학교 학생들이 환영 인사로 준비한 베트남 전통악기 연주 '아리랑'을 듣고 따뜻한 격려로 화답했다.

대통령 부부는 이어서 행사장 입구에

전시된 세종학당 한국어 교재, 내년 1월 첫 정식출판을 앞둔 베트남 초·중등학교 정규 한국어 교과서, 한국학과 학생들이 만든 한글 문법 수첩 등을 둘러보았다. 베트남 학생이 한국어로 전시 내용을 설명하자, "한국어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학생들을 격려했다.

오늘 참석한 학생들이 모두 한국어가 능숙했지만, 대통령은 베트남 학생들과의 대화에 앞서 오히려 "신짜오"(Xin chào, 안녕하세요)라고 베트남어로 인사를 해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한국과 베트남이 수

교를 하고 친구의 나라가 된 지 이제 벌써 30년이 넘었다. 그리고 양국은 많은 가능성을 서로 공유하고, 경제 산업에서도 협력을 이뤄내고, 양국의 발전과 성장에 우리의 친구 관계와 협력 관계가 큰 도움이 됐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대통령은 또, 한국어에 대한 베트남 내의 높은 관심과 관련해, "베트남에서 한국어 공부 열기가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지에 와서 설명을 듣고 교재를 보니 현실과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의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열기에 보답할 만한 큰 책임감도 느낀다"며 소감을 말했다.

최광수/기자

경북도 "탄소중립과 보건환경"미래 생존 화두로 토론의 장 열어

제3기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환경산림자원분과 회의 개최



경북도는 23일 도청 회의실에서 올해 5월 새로 구성된 제3기 정책자문위원회 환경산림자원 분과위원회와 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경북연구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환경산림자원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새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는 전국 단위 환경·산림·보건 분야 교수, 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와 기업인, 도의원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했고, 앞으로 2년의 이동민연구원 등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자문과 협업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현재는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코로나 등 전염병에 따른 보건위생이 미래 생존의 주요 화두인 시대다.

2050 탄소중립 중장기 계획과 자원순환도시 건설, 물산업 육성, 산물 대응 첨단화 및 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전염병 예방, 식약품 안전 강화 등 환경과 건강이 중요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고자 추진했다.

이날 회의는 먼저 위원장 선임과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계획과 역점시책 발표에 이어 위원들의 의견제시와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환경산림자원국 주요 시책은 경북 지질자원 신규발굴과 세계화 추진,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안동명 상류 수질개선과 도심지역 물순환 인프라 구축, 국립 동해안 산물방지센터 건립, 목재자원화센터 건립, 국립 산지생태원 조성, 경북형 동서트레일 조성사업 등을 발표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주요 신규시책으로 하수를 이용한 차세대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감시체계 구축, 대마(헵프) 관련 식품 활용을 위한 검사·연구 강화, 수질평가지수를 이용한 남조류 발생 특성 연구, 경북지역 미세먼지 성분 분석 등을 발표했다.

경기도, 23일부터 한달간 31개 시군서 열린이동민원실 '파란31 맞손카페' 운영

경기도가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현장에서 직접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이동민원실 '파란31 맞손카페'를 마련, 6월 23일 안양시를 시작으로 7월 22일 수원시까지 한 달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도청에서 열린 '파란31 맞손카페' 출범식에서 "찾아가는 서비스인 만큼 도민을 입장에서 더 배려해주고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라며 "저를 대신한다고 생각하고 도민들에게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경청하고 소통해 달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바꾸도록 하자"고 말했다.

'파란31 맞손카페'는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초심을 다지고 현장에서 도민의 이야기를 경청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움직임은 민원실이다. 31개 시·군 전역을 1대의 트럭과 1대의 버스가 각각 경기북부, 남부를 돌며 각종 민원과 '도지사에 바란다' 등을 접수

하는 역할을 맡는다.

남부는 안양시, 북부는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7월 22일 토요일 최종 총착차 수원으로 돌아오는 예정이다. 수원으로 돌아오는 22일에는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당일 오후 7시부터 도민을 초청해 '한여름밤 맞손토크'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캐릭터 '봉공이'로 꾸며진 트럭과 버스 내부에는 무더위에 시원하게 쉴 수 있는 쉼터와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했으며, '도지사에게 바란다' 코너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도 구성했다. 도민이 작성한 의견은 7월 22일 '한여름밤 맞손토크' 개최 시 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해 정책 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이번 '파란31 맞손카페' 세부 내용과 이벤트 참여 방법은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도 공식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찬식/기자

전남도, 서남권 사회기반시설 신프로젝트 추진 기반 마련

전라남도가 서남권 경제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남 서남권 사회간접자본(SOC) 신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속도감을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엔 총 2조 7천900억 원 규모의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과 대불산단대로 연결 프로젝트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5천만 원, 4천억 원 규모의 목포 구도심과 하당-남악-오룡 신도시를 잇는 '전남형 트램' 구축 사전점도 용역비 3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전남도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전남

도의회가 호응해줘 관련 예산을 신속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광주와 영암 F1 경기장까지 47km를 잇는 아우토반과 영암-목포를 잇는 대불산단대로(2.5km)는 용역을 통해 국가계획 반영에 적극 대응하고, 전남형 트램은 최적의 노선과 운행 방식을 검토한 후, 전남 실정에 맞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병호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지역 균형발전의 큰 축인 서남권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새로운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를 목표로, 영암군, 무안군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며 "도민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종배/기자



문화매일 6월 26일 사명

박원규 함평군, 영광군, 진도

최갑문 신안군, 해남군

박원규 무안군, 영암군

3대 문화권 사업 간의 연계 방안 및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 기대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3대문화권 사업 연계 경북관광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22일 도청 안민관 다목적홀에서 관광정책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과 함께 '3대 문화권 사업 연계 경북관광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북도내 각 시군에 포진되어 있는 3대 문화권 사업이 경북 관광의 랜드마크로 발돋움하기 위한 각 사업 간의 효율적인 연계와, 국내외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경북관광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구윤철 대표이사(경북문화재단)의 '경북의 문화관광 육성 전략'이라는 주제에 이어, 전상미 교수(국립안동대학교)의 '경북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이어갔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대일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상철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효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국 경북문화관광공사 디지털관광실장, 권영두 세계유교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성실 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이태우 경상북도관광협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출연해 3대문화권 사업의 현 문제점 및 연계방안과, 경북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경북도내 각 시군의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담당자 등 내빈과 지정토론자가 한데 어우러지는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김대일 위원장은 "경북도 및 시군의 관광산업의 발전과 3대 문화권 사업의 운영문제 해결을 위해 각 사업 간의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관광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경북관광 활성화 방안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토론회가 3대문화권 사업의 연계와 경북관광 활성화에 대한 발전적인 의견을 모으고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 정책개발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서울시의회, 17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공동 대응 결의

21일(수) 대구서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3년 제5차 임시회 개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공동 대응키로 결의했다.

김현기 회장은 21일 대구에서 2023년 제5차 임시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 강력한 권한이 집중된 현실에서 독립된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협의회 차원에서 준비 중인 '지방의회법'이 지방의정 발전과 지방분권 확산의 토대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의회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없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의 조직, 예산을 결정하는 부정합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집행기관에 종속된 조직 환경에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는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가 계속해서 지방의회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김 회장은 "힘 닿는대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입법화 추진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지난 5월 한국법제연구원과 업무협약도 체결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는 총 13건의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 건조 국비 지원 근거 마련 건의안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개선 건의안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했다.

또, 매달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동승자 의무시행에 따른 인력충원 및 예산 증액 건의 등 각종 현안해결을 위한 안건들에 대해 논의하고 대정부 건의에 동의했다.

이외에도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세계유산명령형(HIA) 법제화를 위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촉구 건의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임시회는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 만규)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전진석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김현기 회장은 "섬유도시에서 미래모빌리티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의

끊임없는 도전과 발전을 기원한다"라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도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하고 역할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경수/기자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2022년 충남교육청 결산심사 원안 가결

적정한 세수추계, 이월금 최소화, 과다 변경 사용 개선 등 5건 시정 요구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충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2022회계연도 충남교육청 예산 규모는 예산현액 5조 6361억 원이며, 수납액은 5조 6513억 원, 지출액은 5조 4209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2,304억 원이다.

예결위원들은 이번 심사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이월사업비 및 집행잔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이월사업을 면밀하게 분석해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집행잔액의 적극적인 감액 조정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세수 추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재정의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전액 미집행 사업 예산편성 제고 필요, 목표설정 관련 관행 개선 필요, 이월금 최소화를 위한 관리 점검 강화, 과다 및 부적정한 변경 사용 개선 등 5건에 대해 시정요구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예결특위 최창용 위원장(당진3·국민의힘)은 "이번 결산 심사에서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했다"며 "예결특위 위원들이 심사과정에서 추운 다양한 의견들을 교육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정근/기자

경기도의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차이 비교분석'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지방의원 의정활동 보장 및 지원 확대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는 23일 영상회의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차이 비교분석"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는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권한과 의정지원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며 "국회의원은 총 9명의 보좌진을 구성하여 정책, 정무,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조력을 받고 있으나, 지방의원은 최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어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의 보장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연구의 추진 배경과 목적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사)한국갈등학회(책임연구원 하동현 교수)에서 총 4개월간 진행되며, 사례분석과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제도의 비교분석과 지방의회(의원)의 권한 및 역할 강화를 위한 법령 및 경기도 자체법규 개선방안 등이 제안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사)한국

갈등학회 하동현 교수는 "지방의회(의원)는 지방정부의 입법기관으로서 상응하는 지위와 권한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며 "인사·입법·재정에서의 자율성과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은 "국회도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며 지방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인사권만 부분적으로 있고, 감사권과 예산권이 없어 부족하다"라며 "이번 연구용역이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착수보고회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는 향후에도 자치와 분권에 걸맞은 지방의회 모델을 정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입법정책 연구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만식/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 박행인·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 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도자: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광고국: 1899.9659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제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 취임 1년... "청년이 찾는 역동적 경제도시 건설" 초석 다져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하루가 1년, 1년이 미래 100년을 결정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장 운영에 매진했습니다”

오는 7월 1일 취임 1년을 맞는 박홍률 목포시장은 바쁘게 걸어온 지난 1년의 소회를 이처럼 표현했다.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표’라는 기치 아래 제41대 민선 8기 목포시장에 취임해 1년을 맞는 박홍률 시장은 지난 임기 1년 동안 공약사항 이행 등 역점·현안사업을 착실히 수행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취임 전 박 시장은 3개 분야 150개 사업을 공약으로 함축해서 발표했다.

분야별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획·복지 42건, 도시·건설 32건, 관광·경제 76건으로 임기가 끝나는 2026년까지 공약 이행을 100%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살기 좋은 목포 건설 매진을 위한 박 시장의 시장 방침도 눈에 띈다.

‘도약하는 지역경제’, ‘감성충만 관광문화’, ‘시민행복 맞춤형복지’, ‘인재양

성 미래교육’, ‘소통중심 공감행정’ 등이 박홍률 시장이 세운 민선 8기 시장 방침이다.

임기 내 줄곧 발목을 잡았던 시내버스·생활쓰레기 소각장 건립도 문제 해결의 방향타를 잡고 해답지를 내놓았다.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민간투자 스토커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직영 공영제와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를 혼합하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으로 시내버스 안정화를 꾀하는 한편, 1년간 끝냈던 소각장 건립재

개조 위생매립장 98% 과포화 상태인 생활 쓰레기 처리도 한시를 놓게 됐다.

아쉬운 점은 취임 1년을 맞고 있지만, 관광거점도시에 걸맞는 5성급 호텔유치가 지지부진하면서 관광인프라 구축이 동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자체 검토수준에 머물러 있는 청년 스마트 산단 역시 임지 선정과 조성 마련에 고심이 크다. 산단 조성은 장기 프로젝트를 감안 박 시장 임기 내 기본계획 마련과 착공의 첫 삽을

들 수 있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희망적인 것은 오는 10월 13일 전국체전이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침체된 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목포역 대개조 사업으로 인한 구도심권 공동화 해소는 물론 지역 상권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본지는 박홍률 시장과 대담을 통해 지난 1년의 성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민선 8기 1주년 주요성과는?

▶ 기업유치와 주력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지식산업센터를 연계한 전략산업 중심의 신생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공모사업 통해 신종년 일자리, 맞춤형 지역산업 일자리(1,000명)를 연계 중에 있으며 스마트인재교육센터를 설립, 4차산업 청년창업가를 발굴, 육성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선박 산업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는 등 강소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는 한편, 연구개발 및 실증을 위한 R&D사업 추진을 병행해 산업고도화를 꾀하고 있다.

▶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한 성장동력 기반 구축

목포어묵 세계화 구축사업과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마른김 거래소 도입 등 목포는 전국 제1의 수산식품 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특산자원의 산업화를 추진해 수산식품산업 메카로 조성할 방침이다.

▶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으로 경제활력 증진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센터 건립으로 해상풍력 물류 인프라가 구축됐다. 항후 지원부두와 배후단지 해경서부정비장 완공과 더불어 조성되면 중소형 선박 고속엔진 스마트 수리 산업은 이곳 목포가 시발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목포항만 특성화 및 기능 강화

489억원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3만톤급 1선석 접안 시설이 현 국제여객선터미널과 연계해 확충된다. (구)목포수협 위판장에는 수변공원, 관광상업시설 등 주민 친화공간이 조성되고 또, 민자유치를 통해 남항 유희공간은 컨벤션 기능을 포함한 5성급 호텔, 해양레저시설이 들어서

면 명실공히 목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전망이다.

▶ 대형행사 성공개최로 '더 큰 목포' 실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3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가 준공을 눈앞에 둔 목포종합경기장 메인스타디움에서 개·폐회식과 12개 종목이 목포에서 치러지는 만큼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김 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및 특화단지 육성을 통해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수산식품 김 박람회 오는 25년 개최 목표로 TF팀도 구성 했다.

▶ 동북아 해양레저관광산업 중심지 구축

거점형 마리나, 해양친수공간, 해양복합레저스포츠타운 구축 등 수요자 중심의 항만개발과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관광객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 지역 성장거점 개발과 SOC 확충

목포의 상징인 삼학도와 내항을 연결하는 가칭 '삼학아트교' 건설을 통한 다도해의 비경과 조화를 이룬 신 관광명소를 조성한다.

목포역을 서남권 랜드마크형 거점역사로 신축하는 한편, 신설 고속철도 증편 수용을 위해 착발선 2~3개 라인 증설 등 철도시설 재배치를 통해 철도이용 시민과 관광객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 강소형 스마트시티 발전 모델 창출

자율주행 전기셔틀 버스도입과 서남권 연계 교통문제 해결, 보행자 중심 관광환경 제공 등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복지도시 구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 출산 축하금 확대 지급

등 건강한 양육가정 육성, 의료 서비스 개선으로 시민 건강을 도모하는 한편, 서민금융 지원,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전통시장 시설행대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 안정을 구현한다.

▶ 시민과 소통하는 섬김행정 실현

시민의 생활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참여시장,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과 성과 중심 조직문화 정착, 재난·재해 예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항후 역점 추진 시책은?

공유수면을 매립(20만평 이하)해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를 조성(2022년~2029년)하고 친환경·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공공임대형 스마트 지식산업센터 건립(2022년~2026년)을 통해 특화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벤처기업 등을 육성할 예정이다.

또, 신안군과의 통합, 목포 시내버스 문제,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2028 세계섬엑스포 유치, 의과대학 유치 등 지역 숙원사업과 난제들에 대해서도 해법 찾기와 청사진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7천 8기 신화를 다시 써가고 있는 신안과의 통합이 민간주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과 함께 비좁은 목포역은 녹지공원 조성, 시설 재배치 등 대개조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서남해안권 섬벨트를 이루는 완도, 진도, 신안 등과 함께 2028 세계섬엑스포 유치를 목표로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 주요 수상 실적과 공모사업 선정은?

지난 임기 동안 각계 기관으로부터 목포시는 총 23건의 수상의 영예

를 안았다.

국도교통부에서 수여한 2022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우수상'(중소 도시부문 1위)과 2023년 유력 언론매체에서 뽑은 '대한민국대표브랜드 대상 해양관도시' 부문 수상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SRT매거진이 선정한 '최고의 여행지 어워드 대상'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인정한 '전국 지자체 공약이행 평가 최고등급(SA)도 자랑거리다.

이 밖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대한민국 에너지효율 친환경대상 장관상', 대한노인회가 수여한 '제1회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 대상'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이 목포시 행정을 가능하게 한 바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한해 동안 공모사업은 500억 상당의 43건이 채택되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이다.

대표적 공모사업으로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목포 문화재 야행', '외도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2023 스마트시티조성 확산사업' 등이 있다.

▲ 시민께 드리는 말씀은?

“남은 임기 동안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시민의 생활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참여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난 1년이 희망찬 도약을 위해 신중히 발판을 다지고, 체질을 개선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부터는 본격적으로 청년이 찾는 큰 목표를 만들어 가는 시간입니다.

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성과는 확대해 나가고 미비점은 보완하여 '청년이 찾는 역동적인 경제도시 목포'를 기필코 이뤄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종배/기자



경기도 김동연지사, 페루 대표단과 경기도-페루 교류확대·스마트도시 협력방안 등 논의

교통, 정보통신기술(ICT), 교육 등 스마트도시 관련 등 경기도-페루 협력방안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페루 친체로시(市) 등 5개 지방정부 시장, 폴 두클로스(Paul Duclos) 주한페루대사 등과 만나 경기도-페루 교류 확대와 스마트 도시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한 한국-페루혁신경제포럼 페루 사절단에게 “한국과 페루는 계속해서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스마트시티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라던지 여러 가지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경기주택공사가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물품과 협약을 맺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페루와도 그런 식으로 더 많은 협력관계가 유지될 것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페루측은 “올해는 한-페루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로 경기도와 함께 협력과 우정을 돈독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라며 “특히 도시의 안전, 치안을 보장할 수 있

는 스마트 도시, 그리고 전자정부를 구축하고 싶다. 한국이 정보통신(IT)기술, 재생에너지, 환경보호, 스마트 도시와 관련해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을 봤으며 페루에 이런 것들을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페루혁신경제포럼은 한국과 페루 간 경제 분야 협력을 위해 지난해 발족했다. 페루 사절단은 친체로시, 아방카이시, 타라이시, 찰후아후아초시, 푸칼파시 시장 5명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친체로시·아방카이시장을 포함한 사절단이 경기도를 방문해 우호 증진 및 교류 협력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한국-페루혁신경제포럼 측은 12월 방문 이후 경기도기업이 페루 지방정부와 협력을 추진하는 성과가 있었고 추가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이들이 다시 경기도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만남에는 서기만 경기벤처기업협회장, 송영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 전경표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고문, 강병조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시흥시 회장 등 경기도 경제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페루 사절단은 경기도와 스마트도시 기반 시설 조성 관련 교통, 정보통신기술(ICT),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각 지역 소

개와 함께 도내 기업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사업 분야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페루의 지지를 적극 요청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번 교류협력 회의를 통해

서도-페루 관계가 보다 진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도내 기업의 수출증진과 국제시장 진출의 다변화를 위해 다양한 지역과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만식/기자

화성시, 부르면 오는 ‘똑버스’ 개통식

23일, 동탄1버스공영차고지에서 경기도형 DRT ‘화성시 똑버스’ 개통식

화성시가 시민이 부르면 오는 ‘화성시 똑버스’개통식을 23일 동탄1버스공영차고지에서 개최했다.

경기도형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 Demand Responsive Transit) ‘화성시 똑버스’는 대중교통 확보가 어려운 신규택지개발지역이나 교통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일정한 노선이나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되는 교통서비스이다. 동탄 1신도시는 5대, 동탄 2신도시는 10대, 향남 1, 2신도시는 5대가 준비돼 오는 7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휴대폰에서 ‘똑타’ 앱을 설치하고 차량을 호출하면 된다.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와 같다. 시는 정식 개통 전인 이달 27일부터 7월 3일까지 1주일간은 동탄 1신도시와 향남 1, 2신도시에서 시범운행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신도시에 똑버스가 시민들의 발이 되어 줄 것”이라며, “난양과 봉담 등 서남부권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DRT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욱 국회의원은 “똑버스는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족한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통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이원욱 국회의원, 김경희 화성시의회의장 및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과 기념촬영, 시승식이 진행됐다. 양시현/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및 치유농장 현장 방문

스마트농업 및 치유농장 활성화 노력 당부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3일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및 관내 치유농장을 방문했다.

이날 위원들은 먼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에 위치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로부터 스마트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농업 분야 4차 산업 기술 적용 활성화를 위해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기술 실증과

리에 위치한 치유농장 ‘그렇게 하루’와 ‘팜엔트리’를 차례로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직접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하루에서는 직접 재배한 송화버섯으로 장아찌 담그기, 송화버섯 비누만들기를 했으며, 팜엔트리에서는 레몬나무 분갈이를 하며 프로그램을 통한 치유를 몸소 경험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스마트농업 기술 교육을 통해 용인형 스마트팜 보급 확산 및 농가 소득향상에 힘 써줄 것”과 “장시간 지속되어온 코로나-19와 경제침체 속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용인시민이 치유농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농가에게는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에 기여



농업인 교육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두창

하는 치유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정부/기자

‘We 스마트 창릉천 통합하천, 고양특례시의 미래를 열다’ 심포지엄 성공적 마무리

고양특례시는 23일 사단법인 한국조경학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의 추진방향 구성과 전문가 및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We 스마트 창릉천 통합하천, 창릉천의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토론회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조경학회를 포함해서 전문가와 일반시민 250여명이 참여했다.

이동한 고양특례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단순한 하천의 친수, 치수, 이수를 넘어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에 고양시 미래를 위한 비전을 담을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 창릉천의 재탄생을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1부 행사의 첫 발표자로 나선 한국조경학회 송병화 교수는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초점을 둔 ‘하천환경 복원사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발표했다. 송병화 교수는 특히 창릉천 하천개발과 관련해 수변 녹지와 생태벨트 등 하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법론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창릉천 통합하천 추진

창릉천 개발을 위한 전문가 및 시민 한자리에 모여



방향’이란 주제로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발굴 방법과 이를 통한 지역주민과 연계된 하천공간 개발의 방향성을 발표했다.

2부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조경학회 안세현 회장을 중합토론 좌장으로 ▲한국조경학회 강영은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상희 박사 ▲고양시정연구원 김은경 연구원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정민경 의원, 원종범 의원, ▲창릉천 하천네트워크 배은숙 부대표가 패널로 참여하여 창릉천 사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

하여 열린 토론을 진행했다.

중합토론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시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창릉천 개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현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을 위한 첫 걸음으로 조성한 이번 심포지엄에 많은 시민이 찾아주셨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사업계획을 면밀히 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수원시, ‘2023년 전자정부발전 유공 국무총리 기관 표창 수상

공공기관 ERP 그룹웨어,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높은 평가 받아

수원시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6회 전자정부의날(6월 24일) 기념행사’에서 ‘2023년 전자정부발전 유공 포상’ 부문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전자정부발전 유공 포상’은 행정안전부가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수원시는 ▲전국 최초 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 ERP(전자적 자원관리) 그룹웨어 통합서비스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를 구축해 시민 편의성을 제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협업기관 통합형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해 예산을 절감했다. 2021~2022년에는 인사 복무 급여 서비스를 확대해 ‘수원시 공공기관 통합 ERP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전환했다.

2023년에는 그룹웨어(전자문서, 메신저, 메일)를 구축해 내년 1월에 운용

할 예정이다.

시민이 수원시에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모바일 시민참여 플랫폼 ‘새빛톡톡’도 구축했다. 7월 1일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혁신적인

첨단기술인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해 미래 지향적인 지능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개발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신상진 성남시장, 풀러턴시 성남비즈니스센터 개관식 참석차 방미

미 진출 원하는 관내기업홍보 및 양국 문화교류 증진

신상진 성남시장이 성남비즈니스센터(K-SBC) 개관식 참석차 이달 23일부터 7월 1일까지 7박9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신시장은 이번 출장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실리콘 벨리 방문과 자매도시 풀러턴시와의 교류 강화, 그리고 성남시립교향악단의 ‘아름다운 성남의 밤’ 연주회와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LA 평화콘서트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출장 첫날인 23일엔 실리콘 벨리의 중심센터 클레라 시청을 방문해 리사 M. 길모어 샌타 클레라 시장과 만나 양도시의 4차산업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5일에는 자매도시인 풀러턴으로 이동해 힐크레스트 공원에서 열리는 제73주년 6.25 한국전쟁 기념식과 풀러턴시 은혜한인교회에서 성남시립교향악단이 선보이는 ‘아름다운 성남의 밤’ 연주회에 참석한다.

27일에는 풀러턴시청에서 성남시와 풀러턴시 현지 자매결연 체결식을 개최한 후 경제 및 무역의 교두보로 활용할 성남비즈니스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

는 성남시 관내 기업에 위한 홍보활동에 나선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GBC LA (경기비즈니스센터 LA), 캘리포니아 수력국, 코트라 LA 등을 시찰하고, LA 디즈니콘서트홀에서 성남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하는 한국전쟁정전협정70주년 기념 음악회에 참석해 한미 양국간 교류와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수원시는 이번 미국 출장을 통해 미국과의 경제, 산업, 문화, 예술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한미 간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성윤/기자



인천경제청, 글로벌 인재 확보 네트워크 구축·매칭에 최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2일 송도 국제도시 G타워에서 '글로벌 기업 인재 발굴을 위한 산·학·연·관 토론-제10회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혁신성장 플랫폼 실무자 네트워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인재 발굴 및 양성, 기업 필요 인력 확보 등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대학 담당자들과 인재 채용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고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기업 온라인 채용관과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사업, 코트라 인천지원단은 외투기업 채용전용관 기업 모집, 채용박람회 사업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앞으로 기업들은 정보교류·공유, 애로 사항 청취, 협력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결원 발생 시 필요한 직원을 수시 채용하고 있지만 송도

에 공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생산직 직원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행사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에스젠바이오, 아이센스, 안센백신 등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기업과 경신홀딩스, 캄시스, 에이치엘클레무브, 아이리스크리아, TOK첨단재료, 포스코이앤씨 등 IFEZ 입주 총 19개 기업의 인사 분야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또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테크노파크, 코트라인천지원단 등의 관계자와 인하대,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 해외 명문대학인 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 대학, 캔트대학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와함께 올해 처음으로 연세대, 특성화고인 서울의 수도권기공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기업과 대학, 기관의 채용 및 취업 담당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형성과 인천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의 매칭과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경원 인천경제청 투자기획과장은 "앞으로 대학과 기관 등이 서로 협력

해 '글로벌 인재 전쟁'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중남/기자



인천경제청, '글로벌 기업 인재 발굴 위한 산학연관 토론회' 개최

'경기청년 사다리즈' 만난 김동연 "수저 색깔 상관 없이 계층이동의 사다리 타고 성공하길"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여자 200여 명 참여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3일 화성 YBM 연수원에서 '2023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여자(사다리즈) 예비교육(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사다리즈'를 만나 "이번 프로그램을 만든 정책적 이유는 사회적 이동(소셜 모빌리티), 계층이동의 사다리다.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단절되면 역동성이 떨어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며 "수저 색깔과 상관없이 사회적 이동이 많이 일어나야 한다. 흠 수저, 수저가 없는 분들도 용기가 되고 다들 성공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엄청난 경쟁을 뚫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3~4주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매 순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면서 "꿈은 계속 바뀔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쉽다.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게끔 하기 위해 경기청년 사다리까지 왔

150명 모집에 4천682명이 신청해 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년들의 관심이 쏠렸다.

특히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김동연 지사가 직접 설계, 설득, 실행 과정에 나섰다. 청년들에게 해외 유학·연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 내용 자체는 김동연 지사가 아주대 총장 때 도입한 '애프터 유',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국가사업으로 제안한 '파란 사다리'가 전신이다. 프로그램 설계 이후에는 올해 2월 주한 호주 대사 접견, 올해 4월 미국 출장 등을 통해 협력 대학을 직접 설득했다.

이날 '사다리즈'로 참여한 청년들은 김동연 지사에게 프로그램 참여 동기, 자기개발 포부와 각오 등을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끊임없는 항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종이 비행기에 적어 날렸다. '사다리즈'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 꿈과 목표를 향한 도전과 변화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종



다. 이 사업에 대해 대단한 애착이 있어 직접 아이디어도 냈고, 예산도 배정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못 찾타도 상관없으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부딪혀 찾아보라. 꿈은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과정에서 찾게 된다"라며 "여러분들의 경비와 장학금을 공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모두 도민 세금이다.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배려했다. 생각으로 언젠가 갚아야 한다. 갚는 시기와 방법은 알아서 정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정책으로, 도내 청년 200명에게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지원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다리즈'는 올해 처음 시작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시간대 30명, 버팔로대 50명, 워싱턴대 40명, 시드니대 30명, 푸단대 50명 등 총 200명이 선발됐다. 영어권 4개 대학의 경우

이비행기를 날렸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이번 예비교육을 시작으로 23일부터 27일까지 연수 사전 교육을 받는다. 사전 교육은 ▲팀 프로젝트 기획과 발표 ▲대학 동문 특강 및 멘토링 ▲안전·문화·언어, 심폐소생술 교육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미션 영상 제작과 편집 교육 ▲진로 고민 상담 등으로 구성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사전 교육이 마무리되면 7월부터 대학별 일정 따라 본격적인 해외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민선 8기 대표 청년 정책사업으로 '경기청년 사다리'와 함께 '경기청년 갭이어(Gap Year)',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등 3대 청년 기회확대사업 추진하고 있다.

'경기청년 갭이어'는 청년들이 3~4개월간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꿈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며,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은 미취업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의 어학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최정근/기자

안양시, 교통장애인 차량 전달식 개최...국제라이온스협회·라이온스클럽 후원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안양시지회에 차량 1대 전달해



안양시는 23일 오전 11시 시청 3층 접견실 및 본관 정문에서 '교통장애인 차량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후원자인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 의 이기열 총재 및 제7지역 라이온스

클럽의 임휘안 지역위원장과 수탁자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의 이대겸 안양시지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와 제7지역 라이온스클럽은 관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고자 교통장애인 차량 1대를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안양시지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차량은 7000만원 상당의 7인승 차량으로 지체장애인이거나 뇌병변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리프트가 장착돼 있다.

차량을 전달받은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안양시지회는 교통장애인이 병원, 복지관, 관공서 등을 방문할 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사진 전시 등의 홍보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이대겸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안양시지회장은 "기존 차량의 노후로 어려움을 겪던 중 차량을 후원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후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교통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필요한 차량을 선뜻 후원해주신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와 제7지역 라이온스클럽은 물론 교통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시에서도 교통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는 1917년 6월 7일에 창립한 세계 최대의 봉사단체이다. 그 중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 지구는 경기남부 160개 클럽을 총괄하고 있으며, 제7지역 라이온스클럽은 안양을 비롯한 8개 클럽을 총괄하고 있다.

신유용/기자

광명시와 시민이 함께 만든 탄소중립 여행 시민 호평 속에 이어가

광명시 시민참여커뮤니티 정책 제안으로 진행되는 민관협력 실행사업

광명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탄소중립을 위해 추진하는 탄소중립 실천여행 '광명 에코버스 타요!'가 시민들의 호평 속에 네 번째 시범사업까지 성황리에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광명 에코버스 타요!'는 시민참여커뮤니티 환경에너지분과의 시민위원들이 기획하여 추진한 민관협력 실행사업으로 관내 환경 관련 시설 견학 및 도심 속 생태환경 탐방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테마별로 기획됐으며, 상반기에 자원회수시설 등을 견학한 '비행본석'을 두 차례 진행하고, 수자원 관련 시설을 견학한 '물길따라서'를 한 차례 진행해 시민과 시민참여커뮤니티 위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지난 21일에는 세 번째 테마로 가림근린공원을 시작으로 도덕산 야생화단지, 출렁다리를 아우르는 도심 속 힐링여행 '술길 따라서'를 진행했다. '술길 따라서'는 생활권과 가까운 도시 숲에서 숲해설가와 함께 내 주변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물론, 탄소흡수원의 역할을 이해하며 바쁜 일상 속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참여한 시민들은 광명시의 명물인 메타세콰이어길을 따라 숲 해설사와 함께 자생식물들을 관찰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도시의 생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도덕산 야생화단지에서는 관찰한 식물들을 직접 그려보는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마지막 코스인 출렁다

리에서는 인공폭포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경관을 바라보며 두 다리로 가는 11번 에코버스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지난 여행에서는 평소 관심 가지지 않거나 잘 알지 못했던 환경시설들을 방문하여 일상에서의 탄소중립 실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여행에서는 내가 사는 집 주변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발견하고 소중한 여기가 되는 시간이었다"며 "주제별로 알차게 구성된 광명 에코버스 타요!가 시범운영을 넘어 정기적인 프로그램으로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규식 광명시 부시장은 "광명시가 그린뉴딜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아이디어가 꼭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관점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도 시민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황인숙 시민참여커뮤니티 환경에너지분과장은 "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하고 실행해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의 참여와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정책 제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시정협의회, 협치실행위원회, 시민참여커뮤니티, 공론화위원회 등 민관협력기구 운영을 통해 시민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며 시민과 행정의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는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윤용민/기자



안산시, SKP KOREA와 안산 소재 기업 경쟁력 강화...업무협약

세계 1위 가격전략 컨설팅그룹 SKP KOREA 노정석 대표, 협약식 이어 기업성장 위한 특강도

안산시는 독일 본(BONN)에 본사를 둔 세계 1위 가격전략컨설팅 그룹인 SKP(Simon.Kucher Partners) KOREA와 안산시 소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안산 소재 기업의 경영전략을 소개하고 현재의 글로벌의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을 추진해 글로벌 경제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SKP사는 히든챔피언의 창시자이자 세계적 경영학자인 헤르만지문 교수가 설립한 경영컨설팅 기업이다.

또한, 가격전략컨설팅 세계 1위 기업으로 가격·마케팅·경영전략 등을 글로벌 대 기업 및 히든챔피언 기업들에 컨설팅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35여 개국에 45개 지사를 운영 중이다.

최정부/기자

이날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협약식에 이어 노정석 대표는 간부공무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나'는 기업성장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노정석 대표는 강연에서 히든챔피언 기업의 경영전략을 소개하고 현재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안산소재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SKP 한국지사가 기업인 아닌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호 협력을 맺고 컨설팅을 결정한 것은 안산시가 최초"라며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내 1만2천여 기업과 15만 근로자를 중심으로 히든챔피언 육성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2023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 참가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침체된 농촌 경제 활성화 위한 귀농귀촌 홍보 최선 노력"

경북도는 지난 23일부터 3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23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에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는 귀농귀촌 지원정책 1:1 대면 상담과 지자체 귀농·귀촌 홍보관을 비롯해 지자체 특산물 전시부스와 농식품 관련 기업 홍보관, 젊은 귀농인들을 위한 청년 창업관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돼 운영했다.

특히, 경북도는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는 도내 20개 시군의 귀농인 및 담당 공무원 100여명과 함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장년들에게 최신 농업 트렌드를 제공했다.

지자체별 귀농 및 청년 창업 지원 정책, 수요자 중심 교육, 다양한 고소득 작물 소개 등 귀농 최적지 경북만의 매력을 적극 홍보해 명실상부한 귀농 최적지임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도는 다양한 고소득 작물과 영농 기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도농가가 많고, 단

계별 정책 및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경북의 매력을 적극 홍보해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로 침체된 농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경북 귀농귀촌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남해군, 제4기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정기회의 개최

남해군은 지난 21일, 종합사회복지관 지하 다목적홀에서 지난 4월 발족한 제4기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의 첫 정기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른 지역 모니터단의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남해군에 적용할 점 등을 모색했다. 또한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중 '교통' 분야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활 속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안도 다수 제시됐으며, 건의된 제안은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정책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

20명으로 구성된 4기 모니터단은 내년 4월까지 남해군에서 추진 중인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61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노인의 관점에서 일상 속 불편사항을 발견하여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남해군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담기 위해 오는 8월 2차 정기회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모니터단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활동을 더욱 장려하여 11월에는 고령친화도시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류기찬 주민행복과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군정에 군민의 목소리를 담는 것"이라며 주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모니터단이 행정에 잘 전달해줌으로써 행정과 민간의 교류협력을 잘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용준/기자



청송군, 과수 생산유통 평가 도내 '1위'

경북도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FTA사업) 도 자율평가 "최우수" 수상

윤경희 청송군수, "청송군 과수농업발전을 위해 현장맞춤형 농정시책 추진에 최선"

청송군은 지난 4월 실시한 2022년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FTA사업) 도 자율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경상북도 19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도비 예산 집행실적, 시행지침준수, 시군 참여조직의 경북연합 사업참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되었으며, 청송군은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군은 평가 결과에 따라 금년도 사업관리비 1천만원 배정, 차년도 사업비 예산지원에서 20% 증액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최근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평가에서 경북도내 1위를 차지한 것은 청송군의 과수분야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송군 과수농업발전을 위해 현장맞춤형 농정시책을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봉화군의의회, 제258회 정례회 폐회

김상희 의장, "실적보고/결산심사 과정 지적 사항, 문제점 인식에 원할히 추진되도록 역량을 집중" 당부

봉화군의의회는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58회 봉화군의의회 정례회를 지난 22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봉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상희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한 조례안 5건, 2023년도 봉화군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통해 군정 주요사업의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고 봉화군의 현안 과제에 대한 집행기관의 추진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희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통해 군정 업무의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실적보고 및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안들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금자/기자



영주시 만감류 스마트팜, 경기도 광주에서도 '주목'

농협 영농회장 등 80명, 스마트팜 재배기술 배우러 23일 방문

해발 350m 청정 소백산자락 영주시의 '만감류' 스마트팜 재배기술을 경기도 광주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만감류는 감귤나무 품종과 당귤나무(오렌지) 품종을 교배해 새로 육성한 감귤류 과일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기도 광주 농협 영농회장·부녀회장 80명이 만감류 스마트팜 재배기술을 배우러 영주시 풍기읍 김명규 농가를 방문했다.

김명규 농가는 지난해 시설화훼(거베라)를 재배하던 1000㎡ 하우스 2동을 리모델링해 온도·습도 조절장치와 관수 센서 등을 갖춘 스마트팜에서 한라봉, 레드향 재배를 시작했다.

이날 진행된 현지 연찬은 만감류 스마트팜을 견학하며 재배기술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연찬 후 광주농협 방문단은 천년고찰 부석사로 이동해 불교의 역사를 배우며 세계유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농협 이재성 팀장은 "광주는 논지채소 농가가 대부분인데, 이번 방문을 통해 배운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한다면, 노동력 절감과 조합원의 소득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또, 국보를 5개나 보유한 부석사를 방문해 문화와 역사도 함께 배울 수 있

어 뜻깊은 방문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영주시는 IOT 기반으로 작물의 최적 생육환경을 제어하는 스마트팜을 신소득 작목 시험연구에 적용하는 '스마트팜 로컬 대체과수(만감류) 육성' 시범사업을 지난해 3월 시작했다.

만감류는 생육비대과 열과 방지를 위해 5~6월에는 하우스 내 주간 온도를 28℃ 이하로 관리를 해야 하고, 7~9월에는 하우스 내부 온도를 30℃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성숙기인 11월과 성숙기 12월에 기존 하우스의 3중 보온막을 활용하고, 보조 가온인 전열 온풍기를 활용해 최저온도를 3℃ 내외로 유지해야 한다.

시는 이러한 생육 환경 조성에 IOT 기술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팜을 접목함으로써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만감류가 영주 딸기처럼 지역의 로컬 대체 과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스마트 로컬 대체 과수(만감류) 육성 시범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기술개발팀(☎054-639-73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근수/기자



울진군, 6월 굿모닝 목요일 특강 성료

손병복 군수, "청년들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활동에 도움 될 수 있는 지원책" 강구

울진군은 지난 15일, 22일 두 차례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 공무원과 군민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진군 굿모닝 목요일 특강을 개최하였다.

울진군 굿모닝 목요일 특강은 매월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목요일 아침에 공부하는 시간으로, 오전 7시 20분부터 90분간 군민, 공무원 및 공무원 직속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5일, 굿모닝 목요일 특강에는 김재홍 前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이 '국가재난관리체계 및 주요 정책의 이해'를 주제로 재난 상황 발생 시의 주요 정책들과 행동 요령을 강의하였다.

또한, 22일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써본 적이 있나요?'라는 주제로 김관훈 북북이 프랜차이즈 '두끼' 대표가 두끼 떡볶이의 창업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도전

정신, 동기부여, 자기개발 전략 등을 소개하였다.

22일 특강에서 손병복 울진군수는 "창업과 같은 큰 목표가 아니더라도 평소 이루고 싶었던 일들을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청년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들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7월 6일과 13일에 열리는 굿모닝 목요일 특강은 김준우 대구대학교 교수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과 지방소멸위기 대응전략'을, 최중호 경일대학교 교수는 '수소 모빌리티,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문화/기자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대구본부, 농산물꾸러미 나눔

4,400만 원 상당 우리 농산물꾸러미(과일, 채소류)

사회복지시설 등 전달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기탁하신 물품, 어려운 이웃에 소중히 전달하겠다" 밝혀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는 지난 23일(금),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김경태(사)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대구지역본부장, 강주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농산물꾸러미를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후원하고(사)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사랑의 우리 농산물꾸러미 나눔 사업은 우리 농업과 취약계층의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기탁 받은 물품은 사회복지시설로 배분

되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에 활용될 예정이다.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는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홍보 및 복지문화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기탁하신 물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영양분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모디소! 맛보소! 즐기소!」 운영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영양분관은 지난 23일(금), 영양군종합복지관에서 영양분관, 장애인권익협회, 농아인협회, 청기면 보호작업장 이용자 및 보호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모디소! 맛보소! 즐기소!'를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은 교통이 불편해 복지관의 접근성이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사업의 주요 복지서비스로 ▲안동의료원 행복병원 진료, 공공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 홍보 ▲해피포토 ▲이동세탁 ▲영양목재문화체험장 목공예체험 ▲구미

환경연수원 환경교육 ▲이미용서비스 등 장애인 및 주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고, 바르게살기운동 영양군협의회 여성회, 재향군인회 여성회에서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분은 '이번 행사로 건강 및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지역주민들과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최은영 관장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을 통해 여러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지역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복지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꾸준히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 전국남여역도선수권대회 수상

총 16개의 메달(금 10, 은 4, 동 2) 획득으로 저력 유감없이 보여줘

이재혁 사장, "이번 기세를 몰아 올해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 거둬주길" 당부해

2023년도 전국남여역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경상북도개발공사 역도팀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대회를 마무리하였다.

국가대표 선발평가전을 겸하는 이번 대회에서 공사 역도팀은 총 7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총 16개의 메달(금 10, 은 4, 동 2)을 획득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국내 최고의 역도 실업팀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공사 한지혜 선수(여자 59kg급)와 서희엽 선수(남자 109kg급)는 각각 금메달 3개씩을 획득하며 3관왕에 올랐으며, 한국 여자역도의 간판 윤진희(여자 55kg급), 박민경(여자 64kg급) 선수도 각각 금메달 2개씩을 획득하는 등 출전 선수 대부분이 메달을 획득하여 올해 10월에 있을 제

104회 전국체전(전남 완도)의 전망을 받게 했다.

이재혁 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하게 훈련하고 이희영 감독을 중심으로 선수단이 하나로 똘똘 뭉친 오늘의 결과를 축하하며, 이 기세를 몰아 올해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주길 바란다."고 축하와 바램을 밝혔다.

윤근수/기자



「안동관광 영크리에이터」 발대식 개최

안동관광, 젊은 시각 장착 '더욱 재미있고 매력적으로'

권기창 안동시장, "영크리에이터 활동 성공 기원, 국내 최고의 관광거점 안동도시를 위해 온 역량 집중"

안동시와 주식회사 이공이공은 지난 21일, 모디684에서 「안동관광 영크리에이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앞으로 안동을 알려 나갈 19세부터 34세까지의 대학생과 일반인 13개 팀 30명에게 위촉장과 수여했으며, 참가자들의 높은 열의 속에 희망찬 시작을 알렸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30명의 영크리에이터는 세 차례의 육성 교육을 거친 뒤 11월 중순까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등 안동 축제 홍보 ▲안동만의 특색을 보유한 로컬 관광영소 홍보 ▲'영크리에이터가 추천하는 당일 여행'코스 개발 및 홍보 등 젊은 세대를 겨냥한 SNS 홍보 콘텐츠를 매달 2건씩 제작해 게시함으로써 안동 관광을 홍보하게 된다.

더불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의 체계

적인 팀별 조언과 콘텐츠 검수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8월 말 열리는 '크리에이터 데이(중간보고회)'와 11월 열리는 결과보고회를 통해 성과를 평가받고 피드백(반응)을 받음으로써 지역의 새내기 크리에이터가 전문 크리에이터로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다음 기수에 선발되는 영크리에이터의 멘티가 되어 관광 홍보에 다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갖추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만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젊은 세대와의 이번 협업에 기대가 크다"라며, "영크리에이터 활동의 성공을 기원하고, 안동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관광거점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예천군, '2023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참가

귀농·귀촌 최적지 예천군으로 오세요! 도시민들 유혹

권석진 농정과장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사업 발굴에 더욱 노력 배가"



예천군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되는 '2023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에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120여 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농업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해 실질적인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군은 귀농·귀촌 상담 부스를 운영해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과 청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정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우수한 예천군 대표 농·특산물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눈길을 사로잡았다.

권석진 농정과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도시민들에게 예천군이 귀농·귀촌하기 좋은 도시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더욱 알찬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농업창업자금 융자 지원 ▲영농 정착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귀농인의 집 운영 등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한울2호기, 계획예방정비 마치고 100% 출력 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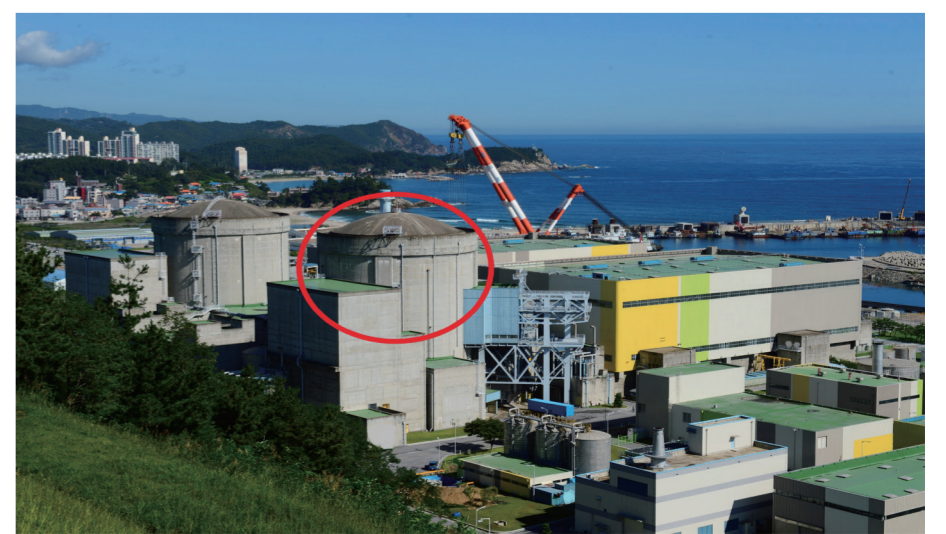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지난 4개월전인 2월 21일, 계획예방정비를 시작한 한울2호기(가압경수로형, 95만kW급)가 지난 21일 발전을 재개해, 23일 10시 55분경 100% 출력에 도달했다"라고 밝혔다.

한울2호기는 이번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연료교체 및 원자로냉각재 펌프, 저압터빈 등 각종 설비 점검과 정비를 수행했다. 또한 원자로 헤드 교체, 제2보조급수탱크 신설을 통해 발전소 안전성을 향상시켰으며,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검사 수검을 완료했다.

한울본부는 향후 원전 안전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발전소에 특이사항 발생 시 관련 내용을 즉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이영팔 소방본부장, "이번 연구결과 앞으로 정책에 널리 활용되길 기대"

경북소방본부, 119소방정책콘퍼런스대회개최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23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대학교수, 소방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9소방정책 콘퍼런스 대회를 개최했다.

경북소방본부 주관으로 열리는 119소방정책 콘퍼런스 대회는 1982년 처음 시작되어 41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술논문 대회다.

소방조직 내부의 연구 분위기를 조성·확산과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대응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매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경북도내 21개 소방서에서 연구한 논문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5개 소방서(안동, 의성, 청도, 예천, 울진)가 열띤 경합을 벌였다.

최우수 논문으로는 예천소방서에서 제출한 "지하주차장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전기차 Off gas 조기경보 시스템(O.P.S)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가 선정

됐다.

논문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열폭주 단계 전 화재를 조기에 감지해 위험경보 및 소방대 출동, 소화설비 작동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로, 예방적 차원의 연구에서 적극성과 대응의 참신성 부문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우수논문은 안동·청도소방서, 장려는 울진.의성소방서가 차지했다.

특히,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예천소방서는 오는 10월 26일 소방청 주관으로 열리는 전국대회에 경상북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이영팔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연구반원들이 흘린 땀방울의 성과에 노고를 치하한다"라며 "연구결과가 앞으로 정책에 널리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한울본부, 울진군 복지시설 및 기관 13곳에 7억여 원 기부

취약계층에 4억 7천5백만 원, 사회복지 시설·기관에 2억 2천1백만 원

박범수 본부장, "주위 어렵고 힘든 이웃 위해 다채로운 사회공헌활동 추진하겠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지난 21일, 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센터장 장태운) 등 울진군 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13곳에 기부금 6억 9천6백만 원을 전달했다.

기부금 중 4억 7천5백만원은 취약계층 집수리/방역소독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위해 사용되며, 2억 2천1백만원은 지역 우수 봉사단체 활동, 복지기관/시설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지원에 쓰일 계획이다.

장태운 센터장은 "전달해주시는 기부금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요양시설 어르신 등 주변 이웃에게 큰 도움

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이웃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울본부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박범수 본부장은 "다양한 사업과 복지프로그램으로 관내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한울본부는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다채로운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울본부는 지금까지 약 26억 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였으며 울진지역 취약계층 복지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윤근수/기자



「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 대구행복기숙사·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지도 방문

지난 21일,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방안 점검

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지난 21일(수) 최근 개관한 대구행복기숙사와 대구통합전산센터를 찾아 화재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화재 예방 지도에 나섰다.

올해 3월 개관된 대구행복기숙사는 수용인원이 1000명으로 현재 600여 명이 입주해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이 생활하며, 기숙사 기능뿐 아니라 다양한 시설과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어 초기안전문화 정착이 중요한 사설이다.

또, 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으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인공지능 기반 보안서비스 등 고품질의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대구를 포함해 전국에 3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데이터 센터는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 후에도 시스템 및 데이터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상당한 혼란과 피해가 예상돼 소방시설과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한 대상이다.

정남구 본부장은 시설 전반을 둘러보며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대상별 특성을 파악하고,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협력 방안과 현장 활동 여건 등을 살피었다.

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화재 발생 시 사회적 혼란과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면서 "관계 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자율 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등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 버릴 수 있는 물놀이장' 2023년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개장

김주수 의성군수, "물놀이장 개장이 가족과 좋은 추억을 간직하는 기회가 되길"

의성군은 여름 물놀이철을 맞아 다음달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은 약 1,300㎡ 규모에 자이언트 트리, 왕릉발굴터 놀이벽, 유물발굴터 분수, 금동관 벤치 분수, 터널 분수 등 조문국의 특색을 반영한 물놀이 시설이 갖춰

져 있다. 특히 이번 개장을 준비하면서 시설 도색과 바닥우레탄 교체를 시행하여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또 물놀이장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박물관은 살아있다', 행사를 7월 1일 개장일 포함, 물놀이장운영 3회 진행하며, 더불어 매주 주말 영화상영, 마지막 주 일요일

진행하는 가족문화체험실, 아이들이 실내에서 뛰어놀 수 있는 상상놀이터를 함께 운영한

다. 올해는 물놀이장 이용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쉬는 시간 없이 10:00~17:00까지 운영 하며, 특히 매주 주말마다 먹거리와 농산물 판매 부스를 운영하여 이용객의 편의성이 더욱 증진될 전망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울여 유달리 더운 날씨에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시원한 힐링을 선사하여 기쁘다"며 "이용객들이 물놀이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육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만큼 가족과의 좋은 추억을 간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휴장일은 매주 월요일(박물관 휴관일)이며, 오전 시 강우 상황에 따라 휴장을 할 계획이다. 이용요금은 만 2세 이상 만 12세 이하는 3,000원(군민 1,500원), 청소년 및 어른은 5,000원(군민 2,500원)이다.

윤근수/기자



'프랑스 파리 주요 랜드마크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부산시, 대한민국 부산의 매력을 파리 현지 버스킹 공연으로 알렸다!



부산시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선보인 버스킹 공연이 현지인들의 뜨거운 호응과 함께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버스킹 공연은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 총회를 계기로 프랑스 파리 현지 주요 랜드마크인 트로카데로 광장과 센스강 브릿지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3일간 진행된 버스킹 공연은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대한민국 전통 콘텐츠를 잘 활용한 공연들로 구성된 현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현지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관람객들은 각자의 휴대폰을 꺼내 공연 장면을 담았고, 공연이 끝난 후에도

쉽게 여운이 가지 않아 공연팀과의 개인 촬영을 요청하기도 했다.

시도 공연팀들이 공연 중간마다 이번 버스킹 공연의 취지를 프랑스어와 영어로 소개하도록 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효과를 더욱 높였으며, 부산이라는 도시의 도시브랜드 제고에도 최선을 다했다.

우선, 현지시각으로 지난 19일과 21일, 트로카데로 광장과 센스강 브릿지에서 '화수목' 밴드가 '대한민국 부산'을 알리는 퓨전국악 공연을 진행했다. '화수목' 밴드는 공연에서 한국 전통의상인 한복과 머리장신구 등을 착용하고, 한국 전통악기(해금, 가야금)와 서양 클래식 악기(첼로, 피아노)를 함께 사용해 현지인들에게 대한민국 부산을 친근하게 알리면서 유치 공감대를 조성했다.

특히,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응원곡으로 불리고 있는 프랑스 샹송 '오 샹들리제'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사메우 초', 대한민국의 대표적 민요이자 명실상부한 한국 문화 대표노래인 '아리랑' 등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뜨거운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21일 트로카데로 광장에서는 프랑스 현지 댄스그룹인 리신(RISIN)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흥

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번 국제박람회기구 총회를 계기로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대상 2030부산세계 박람회 유치를 홍보하고 자 프랑스 파리 택시 150대, 영국 런던 시티투어 2층 버스 5대, 브뤼셀 트램 12대를 랩핑해 유럽 현지인 대상 유치 공감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광수/기자

지난 19~21일, 3일간 진행된 버스킹 공연 성료, 현지인 뜨거운 호응 받아 화수목 밴드 '퓨전국악 공연', 현지 댄스그룹 리신(RISIN) '케이팝 댄스공연' 선보여



경북도,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집중검사 실시



다중이용시설 냉각탑, 급수시설, 욕조수 등 환경수계 대상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하절기 레지오넬라균 예방을 위해 6월 중순부터 종합병원, 요양시설, 대형건물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레지오넬라균 예방검사는 도내 소재하는 256개소 시설의 냉·온수, 냉각탑, 욕조수, 분수대 등 레지오넬라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검체 1천여 건을 검사할 예정이다.

제3급 범접감염병인 레지오넬라균은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균이 따뜻하고 습한 조건에서 생육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냉방기를 가동하기 시작하는 여름철부터 초가을까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레지오넬라균은 냉각탑수, 급수시설, 목욕탕 등 인공으로 만들어진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에어로졸을 통해 호흡기로 흡입돼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은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어도 감기와 유사한 경미한 증상을 보이지만, 기저질환 보유자와 고령자의 경우 심각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연구원은 레지오넬라균의 예방관리를 위해 매년 하절기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224개소, 895건의 환경검체 중 100건의 검체에서 레지오넬라균을 검출해 소독 및 환경개선 후 재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서상욱 경북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레지오넬라균의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냉각탑 및 급수시스템과 같은 시설물의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이 중요하다"라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군위 경제, 농정부터 살핀다

지난 23일(금),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방문, 군위군수 면담 고령층·전업농 많은 군위군 특성에 맞춘 농정 정책 필요 공감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제301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23일(금), 대구 편입을 일주일 정도 앞둔 군위군을 방문해 군위군 경제의 핵심인 농정분야의 현안 파악에 나섰다.

경환위는 이날 오전 군위군의 농정분야를 총괄 담당하는 군위군 농업기술센터를 찾아 군위군 농업의 일반 현황과 최근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연이어 군위군청을 방문해 김진열 군위군수를 비롯한 박수현 군의회 의장 등을 만나 대구시 편입과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위군 농업기술센터의 동기계임대소와 미생물배양소, 시범포 등을 두루 살펴본 경환위원들은 "방문 전 막연히 알고 있었던 것보다 군위군의 농업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라며, "고령층·전업 농가가 많은 군위군의 농업 특성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대구시의 상대적으로 젊은 소규모·겸업·도시농업 중심의 농정과는 다른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데 느낀 바가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군위군수를 만난 이태순 경제환경위원장(달서구4)은 "군위군과 함께 하는 대구시의 미래가 기대된다"며, "군위군의 농정분야 노하우는 새로운 대구시의 발전에 큰 자산이 될 것이며, 군위군의 잠재력과 대구시의 활력이 만나 제대로 된 상승효과가 나오도록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환위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앞두고 군위군 경제의 핵심인 농정분야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 군위군의 농업 자원과 잠재력을 활용할 방안을 고심해왔다.

이태순 위원장은 지난 4월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농촌진흥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최근 제301회 정례회 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관련된 지원 조례를 제정 발의하며 군위군 편입에 대응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2023 문경찾사발축제 평가 보고회 개최



욱 안전하고 만족도가 높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신현국 문경시장, "이번 축제 평가 결과 바탕, 내년엔 더욱 안전하고 만족도가 높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 당부



문경시는 지난 23일 14시, 문경시청 대회의실에서 신현국 시장과 김선식 축제추진위원장을 비롯, 찾사발축제 추진위원 30여 명이 참석, 2023 문경찾사발축제 평가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29일 '찾사발'에 담긴 천년의 불꽃'이란 주제로 문경새재 오문세트장에서 개막한 '2023 문경찾사발축제'는 9일간의 새롭고 알찬 결실을 거두고 5월 7일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전면 오프라인 축제로 개최한 이번 축제에 9일 동안 24만여 명의 관람객이 축제장을 방문하고, 방문객의 소비 지출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경제효과가 137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평가된 올해 문경찾사발축제 주요성과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를 바탕으로 찾사발공모대전, 문경도자기 명품전 등 다양한 대표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과 더불어 전국가루차 투다대회, 다화경연대회 등 도자기를 활용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 것으로서, 찾사발이라는 콘텐츠를 새롭게 해석하여 확장한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또한, 축제기간동안 축제장 입장료와 주차요금 그리고 전통차 운행을 전면 무료로 운영하여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은 점과 많은 비로 인하여 축제장 환경 변화와 운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천으로 인한 축제장 상황을 고려하여 야자매트를 설치한 것과 프로그램 운영 시간과 장소를 현장 상황에 맞게 변경 운영한 것 등 축제추진시스템에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운영된 비상대응체계 등이 우수한 사례였다고 평가됐다.

개선점으로는 축제의 소재와 방향성

측면에서 관련성이 부족한 프로그램을 배제하여 축제 콘텐츠의 집중도를 높일 필요성과 지역관광 인프라와 연계·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가 보고회 자리를 빌려 문경도자기협동조합과 경북무형문화재 미산 김선식 사기장은 문경시 인제육성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재)문경시장학회에 장학금 각 500만원씩 총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은 2023 문경찾사발축제 기간 중 진행된 생활자기 및 명품도자기 경매에서 문경도자기협동조합 소속 도예인들의 작품 120여 점을 판매하고 발생한 수익금과 경북무형문화재 미산 김선식 사기장의 후학을 위한 뜻이 모여 마련됐다.

김선식 축제추진위원장은 "이번 축제가 문경도자기의 실용성을 강조하고 가격이 저렴한 생활도자기로의 재탄생을 알렸다면 내년에는 축제와 연계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문경찾사발이 문경생활도자기로서 관람객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올해 찾사발축제가 잦은 우천에도 불구하고 축제 관계자 모두의 노력으로 큰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에 감사드리며,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



영양군, 6.25전쟁 제73주년 기념식 개최

'위대한 헌신에, 존경과 감사'이란 슬로건으로 거행돼 오도창 영양군수, "영양군 보훈 영웅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혀



영양군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영양군문화체육센터에서 「6.25전쟁 제7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위대한 헌신에, 존경과 감사'이란 슬로건으로 거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보훈단체장과 6.25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등 300여 명이 참여해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위훈을 기렸다.

기념식은 호국보훈의 달 홍보 영상물 상영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모범유공자 표창, 기념사, 격려사에 이어 만

세삼창, 6.25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6.25참전 용사와 유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몰장병의 숭고한 희생에 소울함이 없도록 예우를 갖춰 진행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과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덕분"이라며 "영양군 보훈 영웅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8282만원처리 기동반 대활약

청송군이 군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초부터 '8282만원처리' 사업을 시행한 결과, 주민 칭찬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군 전역을 행복한 미소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282만원처리' 사업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불편사항을 기동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해결해주는 서비스로, 청송군은 올해 1월 9일 발대식을 가지고 현재까지 약 5개월 간 1,498가구 3,458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는 청송군 전체 14,059세대대의 10.6%에 달하는 수준으로, 단순 처리현황만 보더라도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동분서주한 기동반의 노고를 알 수 있다.

특히, 청송 군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8282만원처리 기동반'의 빨간 승합차가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정도이며, 이 차량 내부에는 방충망, LED전등, 콘센트, 스무치, 싱크대·세면대 수전, 변기부속, 문고리, 각종 자재와 장비 등이 상시로 준비돼 있어 마치 이동식 철물점을 방불케 한다.

한 기동반 대원은 "지난 5개월간 기동차량이 24,600km를 주행할 정도로 정말 타이어가 닳도록 열심히 뛰어 다녔다. 앞으로도 민원이 없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간의 운영 소감을 전했다.

또한 "동네에 젊은 사람이 없어 직접 해결 할 수 없고,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에 이렇게 달려와 주니 뭐라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마움을 느낀다.", "혼자 계산 어머니에게 자식보다 나은 서비스가 있어 고향에 대한 큰 자부심을 느낀다." 등의 여러 칭찬 후기가 전해질 정도로 호응도 좋게 나타나고 있다.

청송군은 향후 서비스 분야를 더욱 확대하고, 운영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군민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8282만원처리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청송의 대표적인 대 군민 행정서비스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지역 발전과 함께 군민 행복의 초석이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의 '8282만원처리' 서비스는 ☎ 054-870-8282 전화 한 통이면 접수 할 수 있다. 청송군에 주민등록된 모든 가구가 연4회 이용가능하며, 취약가구(65세 이상 독거/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심한 장애인 등)의 경우 회당 5만 원 이하의 재료를 직접 지원해주

남녀노소 칭찬 일색, 군 전역 행복한 미소로 가득 채워 윤경희 군수, "8282만원처리,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 초석 되도록 운영" 최선

고 일반가구는 재료를 준비해 놓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빈집, 창고, 상가 등 제외)

윤근수/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고흥, 우주항공 중심지 육성”

도민과 대화...장애인 복지센터·발사체 클러스터 등 지원 약속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2일 “고흥군이 우주항공 중심지로 우뚝 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고흥군 고흥팔영체육관에서 열린 고흥 도민과의 대화에서 “고흥은 지난 3월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지정과 5월 누리호 3차 발사 등 우주항공 분야 성과를 잇따라 내고 있다”며 “전남도와 고흥군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우주항공 클러스터 에타 조기 통과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민과의 대화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공영민 고흥군수와 이재학 고흥군의 회 의장, 송형근·박선준 전남도의원, 장승명 고흥경찰서장, 문병은 고흥소방서장, 전남도 실국장, 고흥군민 등 200여 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공영민 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민선 8기 고흥 비전은 ‘10년 후 고흥 인구 10만’

기반 구축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기반시설 구축에 보다 더 노력하겠다”며 “지역 주요 현안인 우주항공 중심도시, 관광객 1천만 시대 여건 조성 등에도 전남도와 긴밀히 협조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 군수는 이날 3층 규모의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 5억 원의 도비 추가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고흥군이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5억 원의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고흥군민들의 건의도 잇따랐다. 김영록 지사는 “두원면 풍류~용당~대전 해안선 구간은 수려한 남해안 청정해역의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도로망으로 지방도 단절구간 연결로 지역 간 접근성

향상 및 교통편의를 제공했으면 한다”며 해안도로 개설을 요청했다. 정성길 도양읍 이장단장은 “도양읍 봉암리 위임국도 77호선 노선은 국도임에도 불구하고 도로폭과 선형이 국도 시설 기준에 부적합해 잦은 교통사고로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로 선형개량 및 확포장과 회전교차로 신설사업을 건의했다. 홍인조 봉래면 예당마을 이장은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로 지정됐고, 우주발사체 국가산단단지가 조성되면 일자리 창출로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며 우주발사체 관련 사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장현호 금산면 자율 방재단장은 “고흥군 미역 생산량은 전국 2위이고, 이에 따른 부산물도 많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수거 비용 문제로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며 가공공장 건립 지원을 요청했다.

김희웅 녹동항 항운노조위원장은 “녹동신항은 도내 육상, 해상 거점으로 기능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김산업의 세계적 수요 증가로 무역량 급증이 기대된다” 녹동신항의 무역항으로 지정을 바랐다. 김영록 지사는 “두원면 용당~예회 간 도로는 내년에 착공되도록 하겠다”며 “위임국도 문제는 국토부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주무부처와 협의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정부와 협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는 “고흥은 우주항공 산업의 메카이고, 동시에 매력 넘치는 관광자원을 보유한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의 거점 도시”라며 “지역 미래 발전을 위해 전남도가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남원-서울 중장년 생활인구, 팬슈머로 통하다

서울 중장년, 남원 사회적경제 및 로컬기업에 재능나눔 추진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남원시 생활인구 활성화와 사업의 일환으로 『남원-서울 중장년 팬슈머 양성 사업』에 참여한 20여명의 중장년 전문가 그룹이 남원 사회적경제 및 로컬기업과 공감투어 교류를 통해 서로의 자원 및 재능 나눔을 통한 상생협력 사례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팬슈머란 팬(fan)과 소비자(consumer)를 합성한 용어로 2020년 소비트렌드로 선정됐으며, 특정 분야에 애정을 가지고 상품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 그룹을 뜻한다. 『중장년 팬슈머 양성 사업』은 서울의 중장년 인적자원과 남원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이 만나 지역 경제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생활인구 특성화 사업이며, 2022년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대응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인생 후반 커리어 전환을 지원하는 서울시 ‘양코르브라보 사회협동조합’과 지역 살아보기를 통해 신중년과 지방을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 ‘패스파인더’,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가 협력하여 지난 6월 19일

부터 3박4일간 진행한 공감투어에는 남원시 사회적경제기업, 로컬기업 및 청년 기업 20여개소가 참여했다. 이번 투어에 선발된 중장년 팬슈머 그룹에는 파워블로거 및 유튜브, 사회적기업 경영자, 브랜딩 전문가, 사회적경제 컨설턴트, 사진 영상 전문가 등 다양한 경력자들이 참여했다. 중장년 팬슈머들은 2023년 한해 동안 남원 사회적경제 및 로컬기업에 전문 분야 컨설팅을 진행하여 하반기 2차 공감투어를 통해 성과를 구체화하고 생활인구 사업을 진행 중인 고령군, 인제군과 더불어 ‘생활인구 포럼’을 통해 지역 상생의 비전을 탐색해 볼 계획이다. 이번 투어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팬슈머 활동을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며, 남원시가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인적자원도 훌륭하다는 것을 느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모은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으로, 서울에서 지역을 오가며 생활인구 더 나아가 정주인구까지 늘어날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고 전했다.

이남출/기자

나주시, 영산강 명품 3백리 자전거길 순항... 문평천 단절구간 신설

교량 철거 따른 단절 구간 총 길이 320m 연결데크 신설

나주시가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힘입어 하천 교량 철거로 단절됐던 영산강(문평천) 자전거길 구간을 연결한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2023년 국토중주자전거길 정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자전거길 조성을 위해 국토중주 자전거길 신규 발굴 및 단절구간 연결, 기존노선 도로 정비 등을 추진한다. 시는 사업 선정에 의해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했다. 올 하반기부터 다시면 가흥리 문평천 영산강 합류지점 자전거길 단절구간에 총길이 320m·폭3m 쉐넬데크 자전거길(연결데크)을 신설할 계획이다. 해당 자전거길은 2020년부터 수해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문평천 재해복구공사로 하천 횡단 교량(회룡교)이 철거되면서 완전 단절된 상태다. 교량 철거로 인해 기존 노선이 하천 농로를 우회, 곡선 교량 차도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변경되면서 자전거 이용자 불편과 차량 간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왔다. 문평천을 가로지르는 자전거길이 연결되면 이용자 안전·편의성 향상은 물론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산강 명품 3백리 자전거길 조성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도 지난해 11월 영산강 3백리 자전거길 조성사업 용역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나주시도 올해 5월 국가하천(영산강·지석천) 자전거길 공사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실시계획 이후 오는 2025년까지 국비 20억원을 투입해 ‘산포배수장~지석천변길’, ‘덕천들~영산강변길’ 단절구간 연결과 노후 자전거길인 ‘나주대교~영산강저류지’ 구간 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영산강 만봉천 자전거길 사업 구간인 오는 7월 동강느리지전망대 자전거길, 내년 12월 운곡동 자전거길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항 중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국토중주자전거길 정비사업을 통해 부분적으로 단절된 자전거길 구간을 잇고 원도심과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명품 자전거길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영산강 명품 3백리 자전거길 조성을 통한 대화 유치와 자전거 관광객 유입 등 지역 관광,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함평군, "토요일엔 함평천지전통시장으로 오세요!"

팝페라, 짬뽕, 옷놀이 등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 마련

매주 토요일 가족,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함평천지전통시장에 마련된다. 함평군은 “함평천지전통시장에서 오는 11월까지 ‘토요일엔(愛) 놀장&플리마켓’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함평비빔밥 거리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국악, 악기연주, 팝페라 등 문화예술공연과 짬뽕, 비즈공예, 머그컵 만들기 같은 생태문화 체험, 그리고 한글, 투호, 옷놀이 등 전통문화와 연계한 가족 놀이

공간 등이 운영된다.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해 시장 내부에 고객 쉼터가 마련됐으며, 특별행사로 전통시장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1회 경품추첨 행사도 진행한다. 또, 수공예품, 농산물 가공품, 증정품 등을 사고팔 수 있는 플리마켓도 함께 운영된다. 플리마켓 판매자들에게는 별도의 참가비 없이 판매 부스와 판매대가 제공되며,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행사는 오는 11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단, 함평천지전통시장 장날(곧바로 2, 7일)인 토요일에는 운영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토요일엔(愛) 놀장&플리마켓 행사는 매월 다른 테마를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완도 전복 신메뉴 출시, 지역 상생 협력 프로젝트 결실 맺어

완도 전복 활용 리조또, 샐러드, 파스타 등 선보여

완도 전복을 활용한 신메뉴가 CJ푸드빌이 운영하는 이탈리안 비스트로 ‘더플레이스’를 통해 출시됐다. 완도 전복을 활용한 신메뉴는 크림 리조또에 버터로 구운 완도 전복을 올리고 전복 소스를 더해 감칠맛을 살린 리조또와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의 완도 전복과 문어, 새우 등 다양한 해산물과 청포도, 레몬 비네거 드레싱이 어우러진 샐러드이다. 바질 페스토의 깊은 풍미와 고소한 치즈가 완도 전복과 조화를 이룬 ‘완도 전복 바질 페스토 파스타’도 선보였다. 이번 신메뉴 출시를 지난달 전라남도 완도군, 장성군, CJ푸드빌과 전복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의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기 위한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한편 CJ푸드빌 외식 브랜드인 빙스와 기타 매장에서도 완도 전복을 활용한 신메뉴가 지속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4월 금산군과 ‘지역 특산물 공동 상품 개발 마케팅’ 업무 협약 이후 ‘금산 인삼·완도 전복 삼계탕’이 6월 말 출시될 예정이며, 온라인 플랫폼인 위메프에서 기획전을 진행할 계

양영율/기자



순천시, ‘경영실습 임대농장’ 공모사업 추가 선정 쾌거



순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상지로 선정되어 총 2개소에 국비 6억여 원을 확보하게 됐다.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스마트농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설(온실) 임대와 함께 농산물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경영 과정을 체험하여 창업 후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총사업비 8억 5천8백5십만원(국비 70%, 지방비 30%)을 투입하여 승주읍 서평리 일원에 약 4,000㎡ 규모의 스마트 온실 2개소를 올해

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청년 농업인이 초기 투자 비용의 부담 없이 영농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순천시가 명실상부한 스마트농업 전초 기지로써 역할을 확대해갈 수 있도록 농업 분야에 대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경영실습 임대농장 뿐만 아니라 농업계학교 스마트팜 실습장 지원사업 등을 통해 농업 혁신을 선도할 미래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으며, 2024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승준/기자

전북도, 국회의원-중앙부처와 소통 강화로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개정안 반영 노력

전북특별자치도 개정법률안 협의 국회의원과의 협치 행보

전북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손잡고 국회의원-중앙부처-전북도가 한 자리에 모여 전북특별자치도 개정법률안을 이해하고 수용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세미나를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앞서 도-국회의원 조찬간담회에서 상호협력 의지를 확인하면서 국회의원별로 전담과제를 지정해 해당부처와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 첫 번째 세미나로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수홍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주최, 전북도·전북연구원 주관으로 전북도 임상규 행정부지사, 국토교통부 담당과장, 전북연구원 연구진 등이 참석해 국토교통분야의 제도개선 사례 개정법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도는 이날 세미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례, 국토종합계획 수립 독자권역 설정,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육성, 산업단지 지정·개발 등 11건의 제도

개선 내용과 행정 권한 이양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적극 설명을 했으며, 국토교통부의 수용 방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나갔다.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은 7월까지 집중적으로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전북형 특례의 부처 수용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리적·환경적 여건 등을 부처에 설명하는 활동을 전개하며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북도는 여·야 협치로 전북특별법 국회 통과라는 성과를 얻어낸 경험을 토대로 이번 전부개정안 입법 과정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과 원팀을 이뤄 여·야 협치의 모델을 완성해나간다는 복안이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김수홍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중앙부처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의 현안을 논의하는 첫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의 중앙부처 설득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쳐 우리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을 힘차게 내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세미나 개최를 통해 각 중앙부처에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추진배경을 적극 설명하고, 주요 제도개선 과

제의 타당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향후 개정안의 부처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남출/기자



신안군, '6.25전쟁 제73주년 기념행사' 개최

나라를 위해 희생한 6.25참전 영웅들께 존경과 감사의 시간 가져

신안군은 23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6.25참전 영웅들께 존경과 감사의 시간 가져'라는 주제로 신안군민체육센터에서 '6.25전쟁 제7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참전 유공자에게 존경과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군의원, 사회기관단체장, 참전유공자 및 보훈단체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6.25전쟁의 분단의 역사를 담은 영상 상영, 모범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격려사, 영웅의 제복입혀드리기, 6.25노래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군은 평소 나라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훈의식 함양에 기여한 국가유공자 후손면 박도순에게 전라남도 표창장을, 암해를 박봉훈, 장산면 김원태, 암태면 이복동에게 신안군수 표

창패를 수여했으며, 또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6.25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위한 영웅의 제복 입혀드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장동석 6.25참전유공자회장은 “올해는 6.25전쟁 73주년이자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송고한 6.25정신을 후손들이 이어받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자신의 안위보다는 조국을 먼저 생각했던 6.25참전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의 결과”라며 “참전용사와 유가족분들께 명예선양과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영진/기자



진도군, 문화재청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 공모 선정

진도군이 최근 2023년 문화재청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지역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비지정 문화유산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작년보다 문화재청이 공모 사업으로 선정, 연간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진도지역 치기형 민속놀이' 선정, 사업비 2억원 확보

진도군은 '진도지역 치기형 민속놀이'가 선정돼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고 지역 대표 문화자원으로의 육성을 계획하고 있다.

치기형 민속놀이는 주로 손과 도구를 사용해 부딪치며 건강한 승부욕을 길러냄

과 동시에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놀이로 교육·복지·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무형유산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단절 위기에 놓인 전통놀이와 문화를 재해석하고 집합화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무형

문화유산을 육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모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진도군 문화예술체육과 관계자는 “우리군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경쟁력과 잠재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며 “치기형 민속놀이를 응용하고 활용해 지역 문화 활성화와 민속문화 계승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구례군, 흙과의 공생 시대를 열어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키로..

구례군, '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국회 토론회 개최



기후 위기 시대에는 흙과 공생하는 것이 지구와 인간을 살리는 가장 효율적인 기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6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지금까지 흙은 이용의 대상에 그쳤으며 앞으로는 흙과 인류의 공생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국립경상대학교 김필주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한 흙의 역할과 새로운 기회 만들기에서 흙은 온실가스의 배출원이자 격리하는 곳이라며 기후변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농업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본의 경우 환경 보존형 농업 직접 지불 사업을 통해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의 50% 이상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았으며 지구온난화 방지와 생물다양성 보존에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길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장은 농경지 탄소 저장과 식량 생산에 대한 발표에서 토양의 탄소 축적률을 1%만 높여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2% 이상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길재 팀장은 지금까지 흙에 저장된 탄소의 정량화는 실험과 연구 중이라고 밝히고 흙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

한 창의적인 신개념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농업과 임업이 협력하여 축산 액비를 산림경영을 위한 친환경 미생물자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송지숙 총괄과장은 친환경농업 전환을 통한 토양 등 농업 분야의 탄소저장 능력 확대 방안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홍성진 부장은 구례군 탄소중립을 위한 토양 탄소 저장 및 합리적 토양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이승현 연구기획실장은 탄소배출권 확보 및 농촌과 산업의 탄소 저장 수익 공유 방안, 전북대학교 이덕배 객원교수는 지속적인 토양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한 생태계 보전방안, 김상규 태재대학교 교수는 지방시대와 지방자치단체 구례군의 현재와 미래라는 내용의 사례발표를 했다.

김순호 군수는 축사를 통해 “흙을 살리면서 저탄소 농업으로 가는 것은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기술”이라며, “흙을 이용의 대상에서 관심과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기만 해도 흙은 얼마든지 되살아나 우리 인류에 반드시 보탬이 된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화순군, 신나는 봉사 행사로 어르신들 '함박웃음'

'아름다운 동행' 주관 올해 4번째 사회혁신 활동 전개



화순군은 23일 화순고인돌전통시장에서 2023년 사회혁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맛나GO~ 해피하GO~' 행사를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문화예술 봉사단체인 아름다운 동행이 주관하고,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상인회, (사)대한가수협회 화순군지부, 연예인협회 화순군지부 등 지역 내 사회단체가 협력하여 마련했다.

'맛나GO~ 해피하GO~'는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추억의 짜장면을 제공하고, 흙이 나는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도암면을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어르신들의 큰 호응 속에 추진됐으며, 앞으로도 2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장을 방문한 구복규 군수는 “지역 내 훌륭한 봉사단체가 많이 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라면서 “아름다운 동행과 같은 사회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이 항상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혁신 공모사업은 지역문제를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올해에는 아름다운 동행, 스마트협동조합, 세계평화여성연합 화순군지부 총 3개 단체가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윤경호/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진 달빛한옥마을서 도민 소통행보

'도지사 마을 현장 좌담회'서 관광·체험 등 6차산업 강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3일 강진 성전면 달빛한옥마을에서 민선 8기 4번째 '도지사 마을 현장 좌담회'를 열어 마을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농촌민박과 관광·체험 등 6차산업 활성화를 강조했다.

좌담회에는 강진원 강진군수, 차영수-전서현-김주용 전남도의원, 김영성 마을이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 30여 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마을의 자랑거리, 마을 애로사항 등에 대해 기탄없는 대화를 나눴다.

달빛한옥마을은 월출산 자락 아래 위치한 그림같은 한옥 전원마을이다. 올해로 조성 10년째를 맞았다. 주민 대부분이 타지에서 왔거나 공무원-군인 등 은퇴한 귀농귀촌인이다.

또한 강진형 농촌 민박 체험프로그램 푸소(FU-SO) 운영과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려는 주민의 노력이 더해져 전국적으로 연간 5천여 명이 찾는 전남의 대표적 한옥마을로 인기가 높다.

마을의 초대 이장으로 선출된 후 10여년 동안 불철주야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발로 뛰고 있는 김영성 이장은 마을 자랑과 함께 마을 입구에 달빛한옥마을을 상

징할 문주 설치 지원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달빛한옥마을은 농촌민박, 관광, 체험이 잘 어우러진 대한민국 6차산업의 롤모델”이라며 “앞으로도 활발한 공동체 활동과 전남도 마을가꾸기 사업인 '오뎀마을 사업'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더욱 멋진 마을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날 김영록 지사는 60여 분간의 마을 좌담회 이후, 전망대에 올라 마을 전경을 조망하고 주민과 마을을 한 바퀴 돌며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도지사 마을 현장 좌담회'는 김영록 도지사의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도민과의 접점을 강화하고 도정 현장의 생생한 주민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박종배/기자



강진군 GANGJINCITY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 및 제2회 고성갈래구경길 걷기대회 개최



강원고성갈래길본부는 오는 6월 24일(토) 오전 9시부터 화진포 돌레길에서 '제2회 고성갈래구경길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고성군은 올해 지역의 주요 명소와 아름다운 동해안 길 등 다양한 관광매력을 가진 강원고성갈래길 홍보를 위해 고성갈래구경길 9개 노선 중 4개 노선에 대한 걷기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5월 20일 송지호 돌레길(7경길)을 시작으로, 6월 24일에는 화진포 돌레길(3경길), 7월 29일에는 관동별곡팔백리길(1경길), 10월 28일에는 건봉사 유적지 탐방길(4경길)로 마지막째 주 토요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화진포 돌레길은 갈래구경길 중 3경길로, 화진포 해양박물관 주차장을

출발하여 이송만별장, 원당리, 찻골, 화진포 해양박물관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걷기 코스로 총 7.5km 구간이며,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된다.

이번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 종료 후 걷기대회가 함께 진행되며, 참가자들에게는 패스포트와 간식이 제공되고, 완주자에게는 스탬프인증 및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이번 고성갈래구경길 걷기대회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와 함께하는 자리로 참가자들에게도 뜻깊은 날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아름다운 화진포 돌레길을 걸으며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해소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철원농특산물 판매장 '오늘의 농부' '오늘의 농부에 담은 농산물꾸러미' 이벤트 진행

'7월의 철원을 한번에 담은 농산물꾸러미'

철원군에서 생산한 신선 농특산물, 가공식품 등을 판매하는 농특산물 직영판매장 '오늘의농부'가 농산물꾸러미 이벤트를 진행한다.

철원군에서 운영하는 농특산물 직영판매장 '오늘의농부'는 6월30일까지 철원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축산식품을 비롯하여 철원의 제철 농산물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농산물꾸러미를 판매한다. 특히 철원군의 돼지고기 지역특화 브랜드인 콜포삼 삼겹살과 목살, 철원 치즈·요거트를 중심으로 꾸러미가 구성되어 구매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철원군 특산품인 파프리카와 고추냉이잎 등 제철 농산물이 함께 구성되어 한번에 철원군의 7월을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될 예정이다. 농산물꾸러미를 구매하면 다가오는

여름철 활용도가 높은 보냉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선착순 100명에게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의 농부'매장은 고성정 내(동송읍 태봉로 1825) 위치해 있으며 농산물꾸러미는 온라인매장을 통해 사전예약(6.22~6.30., 선착순 100명)을 받으며 배송 및 직매장 수령(7.3~7.7.)을 선택할 수 있다. 소핑을 이용 만원이상 주문시 배송비는 무료이며, 인터넷 주소창에 '오늘의농부.kr'을 입력하면 사이트에서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농업유통과장(김재국)은 "철원군의 농특산물을 한번에 맛볼 수 있는 농산물꾸러미를 통해 철원군의 농특산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세나/기자

춘천시, 도내 유일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 우수 지방자치단체상 수상

'2023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 23~2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개최



춘천시가 '2023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상을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3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가 열린다.

'2023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는 귀농과 귀촌을 희망하는 청장년들에게 창농의 길잡이 역할 등을 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날 우수지자체로는 춘천을 포함해 전국 17개 시군이 선정됐다.

2021년부터 시는 농민축산식품부로부터 귀농귀촌지원센터(춘천시농업협회의소) 지정, 운영하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 관련 교육, 귀농인의 집 조성, 농촌에서 살아가기, 귀농귀촌 현장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에 들어서 추경 예산확보를

를 통해 귀농·귀촌인을 위한 전문교육 및 멘토-멘티 과정 운영, 귀농·귀촌 이사비용 및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 신규사업을 발굴, 보다 적극적으로 귀농·귀촌 유입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점진적 노력을 인정받으면서, 지난 4월 '귀농·귀촌 청년 고향사랑 박람회' 우수 지자체상 수상에 이어 2023년 전국 단위 귀농·귀촌 박람회에서도 2차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동안 적극적인 귀농·귀촌 유입을 위해, 춘천시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춘천시 귀농·귀촌 현황에 따르면 귀농인 수는 2019년 56명, 2020년 59명, 2021년 60명이다.

같은 기간 귀촌인 수는 3,539명, 3,714명, 3,652명이다.

이동원/기자



강릉 세계합창대회는 자원봉사자도 특별하다!

해외, 자원봉사명장, 의전장교 출신 등 이색 경력의 봉사자 신청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의 원활한 운영에 큰 힘이 되어줄 자원봉사자 발대식 및 기본교육이 오는 24일(토) 오전 11시 강릉시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김홍규 강릉시장을 비롯한 김기영 강릉시의회의장,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 결의문 낭독, 대회 성공 기원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발대식 이후에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친절 및 서비스, 위급상황 대처, 성범죄 방지 등의 기본교육과 파트별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부족한 없는 합창단 및 관람객 맞이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에 나선다.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 조직위원회는 전 세계 34개국에서 참가하는 321개 팀, 총 8천여 명의 합창단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531명(연인원 4,181명)의 자원봉사자를 최종 선발했다.

영어와 중국어, 이란어, 에스토니아어 등 소수 언어를 포함 20여 개의 언어로 합창단원의 인솔·통역을 책임질 봉사자 118명과 참가국 국기 기수, 경연 사회자 등의 행사 지원, 행사장 및 관광지 안내 등을 담당할 봉사자 413명의 모집을 완료했다.

자원봉사자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함께하며 봉사활동 시간 인정, 유니폼과 배지

(badge), 식사와 관의 봉사자를 위한 숙소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합창대회에는 해외, 자원봉사명장, 의전장교 출신 등 이색 경력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특별함을 더하고 있다.

봉사자 중 최고령이면서 스웨덴에서 40여 년 거주하다 귀국해 스웨덴어 통역에 지원하신 80세 최병규님, 독일에서 자폐치료를 받던 중 지인의 대회 참가 소식을 듣고 일시 귀국해 통역 봉사를 신청하신 김미선님을 비롯하여 미국, 가나, 태국, 몰도바 등 13개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16명이 등록했다.

또한, 누적 봉사시간이 1만 시간 이상인 경우 주어지는 자원봉사 최고의 영예에 '강원도 자원봉사명장' 칭호를 받은 강순자님과 육군본부에서 통역·의전장교로 복무하고 현재는 치과대학에 재학 중인 권택현님도 등록하여 대회 성공의 숨은 일꾼으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참여가 대회 성공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발대식과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역량증진 및 업무 이해도를 높여, 국내외 합창단원과 관람객, 자원봉사자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동원/기자

원주시 수돗물 정수처리시설 개선... 안전성 향상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위해 정수장 개선 강화

원주시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원주정수장 수돗물 생산시설을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정수처리 공정 중 처리수의 수질 개선을 위해 여과지 표면 세척기와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등 세척시설을 교체했으며, 급속여과지 및 활성탄여과지의 역세척 주기를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원

주정수장 내 배수지 7곳에 대한 청소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살균·소독제의 투입 농도를 높여 병원성 세균과 바이러스 같은 유해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 전국의 정수장을 긴장하게 했던 깔따구 유충과 같은 소형생물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침전지, 정수지, 배수지 유입부에 미세 여과망을 설치했다.

정수장 내 곤충 서식을 방지하기 위해 처리시설 주변 녹지를 일부 포장하고 제초 작업도 실시했다.

이 밖에도, 처리수의 창문과 환풍구 모두 미세방충망으로 교체하고 출입구는 이중문과 에어커튼을 설치하여 작업자의 출

입으로 인한 곤충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유입되더라도 처리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포충기를 가동하고 있다.

문범주 원주시상수도사업소장은 "예년보다 더 일찍 시작된 폭염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상수원 수질의 급격한 변화 외에도 깔따구 유충과 같은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들로 수돗물 생산에 난항이 예상되지만,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개선사업을 발굴하고 도입하여 정수장을 관리하면 올해도 원주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제1호 이익공유, 태백시 풍력발전사업 공동개발 업무협약식 개최



지난 21일 태백시, 한국광해광업공단, (주)대우건설 3개 기관이 '시민과 함께하는 이익공유'란 주제로 풍력발전사업 공동개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이상호 태백시장,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주)대우건설 백정환 사장이 참석했다.

태백시에 신규 건설 예정인 풍력발전단지 60MW 규모로, 총 사업비 2,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26년 상업운전을 목표하고 있다.

이번 공동개발 풍력사업은 태백시민과 함께 지역 상생을 모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첫 사례로 추진된다. 시는 풍력발전단지 출자 및 이익공유를 통해 산모들에게 무제한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신생아 산후 조리 비용도 계속해서 지원하여 산모들의 빠른 회복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2세 미만 육아수당 등 정부의 복지정

책이 미치지 않는 사업을 발굴하여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관내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꿈탄반바우치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진폐환우 및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는 보호자 없는 병실을 확대 향후 65세 이상 전 태백시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점진적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그 동안의 풍력발전사업운영이 사업자만의 이익을 위한 풍력발전사업이었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사업자의 이익을 지역과 함께 나누는 상생의 발전사업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태백의 바람은 태백시민의 재산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에너지복지 정책추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상근/기자



청주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완료보고회 개최

스마트기술과 지역관광의 조화,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성과 발표



청주시는 23일 임시청사 회의실에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시의원, 한국관광공사 및 충청북도 관계자와 사업을 추진한 '디지털그시티 청주 컨소시엄'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완료보고회는 그간의 개발 성과와 앱(APP) 기능 시연, 그리고 향후 운영 및 고도화 계획 발표순으로 진행됐으며, 관계부서 및 사업 관련자들은 청주시 스마트관광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스마트관광 인프라 확장을 위해 2020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공모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주시는 2022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 6월 한국관광공사 및 충청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7월부터 '디지털그시티 청주 컨소시엄'과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다. 이후 1년간의 개발을 마치고 내달 3일 출범식 개최와 동시에 '청주여기'라는 이름의 스마트관광 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청주여기' 앱은 스마트기술과 관광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청주시가 가진 관광자원을 편리하게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광 모바일 플랫폼이다. 여행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여행 중, 그리고 여행 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관광 앱으로써, ▲성향에 맞는 관광 코스 추천 ▲식당, 카페, 숙박업소 등의 스마트 예약·결제 ▲스마트 택시 예약 ▲실시간 버스 및 항공 정보 제공 등의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AR·VR서비스 ▲동영상 및 여행 에세이 등의 꿀잼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더불어 여행중 촬영한 사진을 직접 편집해 실제 포토북으로 받아볼 수 있는 '디지털그 북' 기능을 탑재해 청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청주 여행을 기록해 되새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외에도 주요 관광 지점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스마트관광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했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구축이 청주시 관광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회로 작용하길 바라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고도화 기간 동안 관광객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더 재미있고 편리한 스마트관광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충남도, 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조성 본격 추진

도-한국관광공사-태안군-충남문화관광재단, 국내 최고 반려동물 관광지 조성 협약

충남도와 한국관광공사, 태안군, 충남문화관광재단이 태안군을 국내 최고 반려동물 동반 관광지 조성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도는 23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이견도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석 한국관광공사 실장, 조상호 태안군 관광진흥과장, 김현식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강 울산시 관광과장, 이흥관 울산문화관광재단 경영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도는 한국관광공사 등과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한 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조성 및 반려동물 친화관광 생태계조성을 통한 '기초형 반려동물 친화관광지'의 새로운 모델 정립 등을 추진한다.

태안군은 주요 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 여행 콘텐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수욕장, 반려견 운동회, 낫지 도그 클래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태안군은 앞서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주관 '2023 반려동물 친화관광지' 공모에 최종 선정돼 20억 원(국비·지방비)을 확보한 바 있다. 반려동물 친화관광지는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해당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 음식, 쇼핑 등의 관광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올해 최초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는 태안군과 울산시 2곳이 선정됐다. 도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구가 증대에 따른 새로운 관광소비층 두각에 비해

반려동물 동반여행 인프라 및 수용태세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조성을 통해 충남의 관광산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전국 최고의 무장애 도시...아산시가 앞장서겠다"

박경귀 아산시장 "전국 최고의 무장애 도시...아산시가 앞장서겠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23일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 열린 '제7회 온양온천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에 방문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장애인농구협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 아산시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충청남도 장애인농구협회, 아산시 장애인농구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대회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전국에서 8개 팀 100여 명이 넘는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열띤 경기를 펼치게 된다. 23일 개최식은 박경귀 시장,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선수단과 임원, 운영진,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전국에서 아산을 찾아주시는 농구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아산은 장애인 마음껏 뛰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무장애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고품격 문화예술 도시를 변모하면서 장애인도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마음껏 관람하며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신정호 지방 정부를 넘어 국가정원을 조성하게 되면 시민과 전국의 장애인들이 찾아와 함께 힐링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도고, 온양, 아산온천 3개 온천의 대한민국 최초 온천 도시 지정에 도전할 것이며, 장애인을 위한 전용 힐링 스파를 건립해 아산을 찾아오는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마음껏 즐기고 온천욕도 하고 문화예술도 관람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승부에 연연하기보다 페어플레이 경기를 보여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산을 자주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휠체어농구는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안된 종목으로 특유의 속도감과 역동적인 움직임,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로 방해와 자리싸움 등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특징으로 비장애인 농구와 기본적인 규칙은 같지만, 색다른 매력력이 있어 보는 이에게 새로운 재미를 주는 종목이다. 김원호/기자

문화도시 충주, ESG 시대 문화예술의 지속가능경영 실험 박차

좌담회, ESG 페스티벌, 업무협약과 굿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제 5차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재)충주중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는 인류세와 탄소 중립의 시대에 문화 예술기관의 지속 가능 경영과 ESG 확산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논의의 자리부터 다양한 거버넌스 구축과 문화실험을 진행하며 이목을 끌고 있다. 환경을 생각하는 재단(E:Environment) 재단은 작년 5월 클린데이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매월 재단 임직원이 함께하는 굿즈 데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19일 충주의료원 로비에서 PET 뚜껑을 수집하고 친환경 비누와 아로마 오일을 만들어 환경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체험을 진행했으며 6월 28일 (주)한국팜비오와 함께 중앙탑공원 일원에서 굿즈데이와 PET 뚜껑 수거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모여진 PET 뚜껑은 별도의 공정을 거쳐 업사이클링 타자로 변신하여 충주의료원 로비에 배치되어 환경에 대한 또 다른 시작을 제시할 것이다. 지속 가능경영을 함께 고민할 다양한 동료들을 만드는 재단(S:Social) 지난 1일, 충주에서 10개의 문화도시 센터장이 참여한 문화도시 충주 좌담회 "목계나루"가 열렸다. 이는 예비도시로서 이례적으로 각 도시의 문화도시 정책의 컨트를 타워가 모이는 자리였으며 특히 'ESG와 문화 예술'이라는 주제로 국내 대표적 예술 중심의 지역사회 공헌사업 중 하나인 GS칼텍스 예술마루의 이승철 관장을 모시고 특강을 진행했다. 또한 6월 20일 충주의료원과 22일 (주)한국팜비오와 ESG 경

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여 충주시내의 ESG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고민하는 재단(G:Governance) 재단은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도시센터에서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인문사회위원회, 문화다양성위원회, 청년문화기획단으로 구성된 4대 위원회를 운영하며 사업에 대한 의결과 월 1회 정기회의뿐만 아니라 각 사업의 선별, 모니터링을 통한 환류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특히 각 위원회에서도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며 시민에게 문화도시 알리기, 우리 동네 이야기 발굴 등 뜻깊은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도시에서 문화 예술 분야의 환경적 책임과 사회적 관심을 기반으로 보다 적극적인 지속 가능한 변화를 실행해 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면서 "문화 예술기관 그리고 문화도시 측면에서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실험하고 현장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다 나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시체육회는 세종시 주민생계조합·(주)영신, 세종우리신협, 태양도시개발 등 단체·기업이 23일 발전기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주민생계조합과 (주)영신은 1,000만원, 세종우리신협과 태양개발은 500만 원을 전달했으며, (주)대진산업도 매일 100만 원 기탁을 약속했다. 김원호/기자

천안시, '자연을 담은 중앙도서관' 그린리모델링...내년 상반기 재개관

그린리모델링으로 커뮤니티 공간 확충 및 이용환경 개선 등 고품격 복합문화공간 조성

천안시 중앙도서관이 오는 12월 '자연을 담은 도서관'으로 다시 태어나 내년 상반기 중 천안시민을 새롭게 맞이한다. 시는 22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천안의 랜드마크 도서관으로 재탄생할 중앙도서관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90년 4월에 개관한 천안시 첫 번째 도서관인 중앙도서관은 30여 년이 지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도서관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의 요구가 커졌다. 이에 중앙도서관 그린리모델링 공사는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 21억 원을 확보하고 시비 94억 원 등 총 115억 원을 투입해 진행 중이다.

중앙도서관은 '자연을 담은 도서관'이라는 콘셉트로 자연친화적 식물 및 자연채광을 내부와 외부 디자인에 적용하고, 냉난방 시스템 등 기본적인 시설을 교체와 노후화된 시설의 구조를 보강하고 있다. 또 외벽 교체 등을 추가해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함과 동시에 단열 기능을 강화해 쾌적한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주차장 보차분리와 개방적 열람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도 확대해 소통과 휴식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중앙도서관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지하 1층은 다목적 강당과 문화창작실을 조성해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자 다양한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1층은 책과 침이 있는 공간, 개방성을 높인 자유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러닝커먼스와 어린이자료실, 체험형 동화구연실 등으로 구성된다. 2층은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자료를 열람하고 학습·연구할 수 있는 종합자료실로 조성되고, 3층은 천안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지역 자료와 지역작가의 작



품을 만날 수 있는 향토자료실, 그리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문화공간이 배치된다. 4층 공간은 사무용 공간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해 12월 공사에 착수해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준공 후에는 재개관 작업을 완료해 2024년 상반기 중 시민들에게 새로 단장한 중앙도서관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박상임 도서관본부장은 "고품격 문화도시 천안의 품격에 맞는 복합문화공간인 도서관을 조성해 다시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세종시 장애인체육발전, 한 마음 한 뜻 힘 보태

세종시 단체와 기업이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에 연이어 발전기금을 쾌척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세종시체육회는 세종시 주민생계조합·(주)영신, 세종우리신협, 태양도시개발 등 단체·기업이 23일 발전기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주민생계조합과 (주)영신은 1,000만원, 세종우리신협과 태양개발은 500만 원을 전달했으며, (주)대진산업도 매일 100만 원 기탁을 약속했다.

세종시 주민생계조합은 행복도시 건설 사업에 따른 원주민들의 안정적인 생계 보장과 재정착을 돕기 위해 출범해 현재 2,800여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성금 기탁은 물론 매년 화합 한마당 행사를 통해 원주민과 이주민의 화합에 앞장서고 있다. 농협회사법인 (주)영신은 행복도시 건설과 함께 현 세종시 전의면으로 사업장을 이전,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산란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임현완 회장은 약정금액 1억 원을 완납

해 세종공동모금회로부터 세종 나눔 명문기업 3호 정회원 인증패를 전달받는 등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등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세종우리신협은 임직원, 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어부바봉사단'을 조직해 환경정화운동과 반찬나눔 봉사활동으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2020년에는 협동경제멘토링 '최우수 조합'에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주)태양도시개발은 세종시 연서면 월하리에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48세대 건립을 추진 중인 부동산 시행 회사다. 해당 아파트는 조치원의 비행안전구역

축소 후 첫 29층 고층 아파트로서 조치원을 일대 22년만의 신축 아파트이기도 하다. 장애인체육회는 이번 후원금을 장애인 체육 지원, 장애 학생 및 선수 장학금 수여, 우수선수 지원, 장애인단체 체육사업 지원 등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애인체육회장(세종시장은)은 "기부활동을 통해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세종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 소중하고 적절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임종식 경북교육감,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체계 정비한다!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난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박차 임종식 교육감, "여름철 안전사고와 자연재해 대비 예방교육 철저, 불의의 사고가 발생지 않도록 최선"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6월 말까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상황 발생 시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자연재난 대응 체계를 정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교육안전관장을 반장으로 12명으로 구성된 상황관리전담반은 비상단계 '경계' 시 가동하고, 교육감을 본부장으로 29명으로 구성된 지역사고수습본부 비상단계 '심각' 시부터 가동되며, 그 외 낮은 비상단계인 '관심', '주의' 단계는 교육안전과에서 자체 대응한다.

또한 상황관리전담반과 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을 위한 근무요원 비상연락망 현행화를 비롯해 교육지원청과 유관기관 등 관계 부서 연락 체계를 정비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비상단계 '심각'이 발효됨에 따라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학사운영조정 회의, 피해 상황 파악 및 관리, 24시간 비상근무 실시, 피해지원 대책 및 복구(안) 마련 등 재난 상황에 대응한 바 있다.

아울러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름철 수상안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여름방학 전 사고 발생 위험지 안전점검 및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교육 등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여름철 안전사고와 자연재해에 대비해 예방교육과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 전국 발명교육을 선도한다!

경상북도교육청 발명교육체험관 관람객 20만 명 돌파! 임종식 교육감, "발명체험교육관이 수요자 요구 부응,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며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전국 최초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로 개관한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이 관람객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2022년 3월 개관 후 월평균 1만 3천여 명이 방문, 지난해 말 10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 5월 '2023 경상북도 교육청 발명&메이커 축제'를 개최하면서 2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람객 10만 명 도달 후에도 꾸준히 체험을 원하는 수요가 많음을 인지한 발명체험교육관은 운영 방법의 개선 및 새로운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관람객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주말의 경우 기존 2회였던 일반 관람을 3회로 늘려 더 많은 체험객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 대상 체험형 창의발명교육프로그램에 신규 프로그램 6가지를 신설해 학교에서 발명체험교육관을 재방문하더라도

새로운 발명교육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속적인 체험물 교체를 통해 일반 관람객 역시 다시 방문하더라도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꾸준히 각종 행사와 연수 등에 장소를 제공하며 3,300여 명의 교원들이 발명체험교육관을 경험했으며, 올해 3월부터 3개월간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으로 전시관을 방문한 학교도 16교, 800여 명에 달한다.

아울러 '발명의 메카' 발명체험교육관과 '관광문화의 중심' 향리단길에 인접해 있어 경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는 '발명'과 '관광'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어 Win-Win 효과를 내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20만이라는 큰 숫자에 함께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발명체험교육관이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며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남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 청렴 공감 이야기 마당 개최

납품업체 관계자·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100여 명 참석...소통·상생 방안 찾아 유상조 교육복지과장, "교육청은 청렴하고 안전한 학교급식돼도록 노력배가"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22일, 창원대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관계자, 영양교사, 영양사,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 공감 이야기 마당(토크)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학교급식 납품업체, 학교 현장, 교육청과의 소통과 공감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식재료 원산지 표시 ▲거대실례가격 조사 ▲납품업체 관계 기관 합동점검 결과 ▲학교급식 청렴 추진 정책 ▲납품업체 건의 사항·자유 토론 등으로 이뤄졌다.

납품업체 관계자는 "위장업체 단속, 기초금액의 정확한 작성과 공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행사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청렴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운영하고자 현장 컨설팅, 기초금액 내역 등 정보 공개, 납품업체와 급식종사자에게 감사 편지쓰기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급식종사자, 납품업체 관계자의 긍지와 책임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상조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자리가 업체와 학교, 교육청 관계자가 함께 모여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며 "교육청에서도 청렴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재현/기자



전남교육청, 제5회 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

장애학생들 '즐거운 경쟁' 펼친다

전남의 장애학생들이 체육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전라남도교육청은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4일 간 여수, 순천, 나주 일원에서 '제5회 전라남도 장애학생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우수한 신인 선수 발굴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급) 학생과 지도교사 등 540여 명이 참가해 평소 갖고 있던 기량을 겨룬다.

보치아, 수영, 육상, e스포츠, 디스크골프, 배드민턴, 슐런, 실내조정 등 8개 종목이 펼쳐지며, 종목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은 내년에 열리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도 대표로 참가할 자격을 얻게 된다.

보치아 대회에 참가하는 한 학생은 "경기를 준비하면서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응

원해주신 부모님과 선생님을 생각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대회 초반부터 학교 현장의 관심이 뜨겁다.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친구의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체험학습을 사전에 신청하고, 응원전에 나설 계획을 세우는 학교도 있어 눈길을 끈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학교체육 활성화와 장애학생 1인 1종목 갖기 활성화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정선영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대회가 장애학생들의 즐거운 체육활동의 시작이자, 평생 건강을 위한 체력 증진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 안전한 대회 진행을 위해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과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교육복지안전망 촘촘한 맞춤형 복지 지원 본격 실시

초중학생 맞춤형 복지 지원 위한 2023년 제2회 교육복지안전망 실무협의회 개최

정영석 과장, "교육복지안전망 지원, 학생이 필요한 지원되게 세밀한 협의" 당부

이 날 실무협의회는 학교 추천서와 담임교사 상담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협의했으며 포항시아동보호팀,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팀,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포항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과 가정을 돕는 방식의 계획을 꾸려나갔다.

포항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사업은 교육복지사 미배치 초·중학교 취약계층 학생을 발굴하여 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영역으로는 맞춤형 현물 지원, 종합심리검사, 사례관리 등이 있다. 분기별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원한다.

정영석 유초등교육과장은 "교육복지안전망 지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학생에게 꼭 필요한 자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 세밀한 협의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화동중, 사제동행 감자캐기 활동 실시

아침 시간 활용 "학교특색교육활동 사제동행 텃밭정원 가꾸기 활동" "부모님 농촌 생활에 진정 감사하는 마음 갖도록 텃밭 정원 가꾸기 활동 지속"

화동중학교는 지난 23일(금), 아침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 특색 교육 활동의 사제동행 텃밭정원 가꾸기 활동으로 감자캐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화동중학교는 사제동행 텃밭 정원 가꾸기를 통하여 생명 존중과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자신이 가꾸는 작물에 대한 관심과 특성을 이해하여 지속가능한 인간 생활을 몸소 깨우치며, 계절에 따라 수확한 제철 음식을 먹으면서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서 자라는 농산물을 알고 건강을 지키는 녹색 식생활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제동행 텃밭 정원 가꾸기는 금요일 아침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하는데, 학

생부의 방송부, 운동부, 독서부, 홍보부 등 4개 부서별로 구역을 정하여 팟말을 만들어 세우고 회의를 통하여 재배할 작물의 결정과 재배 방법을 익혀 작물이 커가는 과정을 관찰하고 모습을 표현해 보면서 생명의 신비로움에 대한 교과 연계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확 후에는 같이 요리하여 먹으면서 자연에 감사함을 배우는 활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화동중학교는 학생들이 본인들의 삶의 터전인 자연과 농촌 생활, 특히 부모님의 농촌 직업 생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 정원 가꾸기 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G 이동통신을 위한 글로벌 청사진 마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이동통신작업반 회의에서 6G 비전 권고(안) 개발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4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이동통신작업반(ITU-R WP5D) 회의에서 6세대 이동통신(6G) 목표 서비스와 핵심 성능 등의 개념을 담은 IMT-2030 프레임워크('6G 비전') 권고(안) 개발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6G 비전은 '30년까지 추진하게 될 6G 국제표준화의 밑그림으로, 그간 우리나라는 6G 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ITU에 '6G 비전 개발그룹' 신설을 제안했을 뿐 아니라, '21년 해당 그룹의 신설 이후 의장국(의장: 대한민국 최형진)으로서 권고(안) 수립에 크게 기여해왔다.

'21년 3월 제37차부터 '23년 1월 제43차까지 총 7번에 걸친 작업반 회의에서는 다수의 ITU 회원국과 산업체, 연구기관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초산업 분야에서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6G 기술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권고(안)의 최종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이번에 도출된 권고(안)에 따르면, 6G 목표 서비스(usage scenarios)는 ▲ 5G보다 향상된 성능을 기반으로 몰입형 경험을 제공하는 증강현실·디지털트윈 등 5G 영역을 확장한 통신기반 서비스, ▲ 인공지능 및 센싱과의 결합을 토대로 한 신규 결합 서비스로 정의됐으며, 이 모든 서비스에 적용되어야 하는 특성으로 지속가능성, 보안/개인정보보호/복구성, 연결성 확장, 지능화 개념이 선정됐다.

6G 핵심성능지표로는 기존 5G 지표의 9개 항목에 더해 6개 항목(커버리지, 포지셔닝, 센싱지표, 인공지능지표, 지속가능성, 상호운용성)이 추가되어 총 15개 항목이 선정됐으며, 이 중에서 신뢰성·지연시간·연결밀도는 5G 대비 최대 10배까지 향상된 목표값을 제시하고 이 외 지표에 대해서는 향후 기술성

능 요구사항 단계('24~'26년)에서 목표값을 결정하기로 했다.

6G 비전 권고(안)은 올해 9월 ITU 산하 지상통신연구반(SG5) 회의에서 채택되면 이후의 승인절차를 거쳐 올해 11~12월 중 6G 비전 권고로 확정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성능기준·평가방법 정의('24~'26년), 후기술 제안('27~'28년) 및 평가·선정('28~'29년) 과정을 거쳐 2030년에 6G 표준 개발 및 승인이 완료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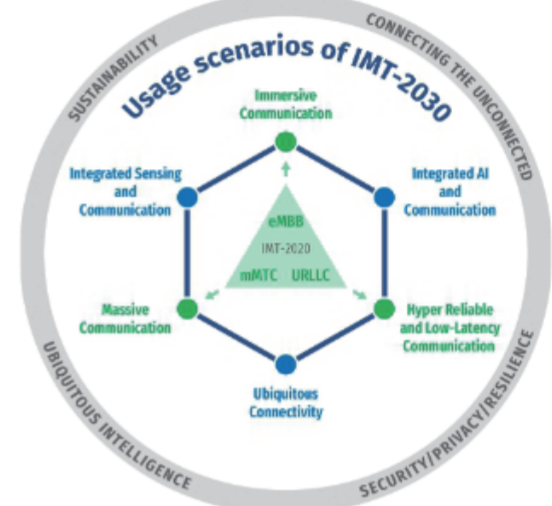
정부는 이러한 6G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차세대 네트워크 모범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올해 2월에 《K-Network 2030 전략》을 발표했으며, 기존의 6G 원천기술개발('21~'25년/총 1,917억원)에 더해 향후 상용화 기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후속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24~'28년/총 6,253억원)도 추

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5월에는 국내 기업에서 세계 최대 이동통신 표준단체인 3GPP의 실무그룹 의장을 2명 배출했으며, 통신 분야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타산업과 통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6G포럼이 출범(5.30.)하는 등 산·학·연에서도 다각도로 우리나라의 6G 기술·표준 선도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홍준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ITU의 6G 비전 권고(안) 합의를 주도하는 등 글로벌 6G 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본격화될 6G 국제표준화 경쟁에서도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K-Network 2030 전략》을 기반으로 6G 연구개발 투자 확대, '26년 Pre-6G 기술 시연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기 반환장 서비스	몰입형 통신 Immersive Communication	초저지연 진화 통신 Hyper Reliable and Low-Latency Communication	초연결 진화 통신 Massive Communication
정의	IMT-2030의 초고속(eMBB)을 확장하여 사용자에 몰입형 통신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 시나리오	IMT-2030의 초저지연(URLLC)을 확장하여 더 엄격한 요구사항인 고성능 지연시간을 요구하며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서비스 시나리오	IMT-2030의 초연결(mMTC)을 확장하여 광범위한 환경에서 다양한 유형의 장치와 센서의 유비쿼터스 연결을 제공하는 서비스 시나리오
사용례	가상현실(VR), 홀로그래피 통신, 원격 다중감각 텔레프레즌스, 비디오 오디오 혼합 트래픽 등	스마트 산업, 자동차 공정, 에너지 서비스, 원격 의료 등	스마트 시티, 이동수단, 물류센터, 헬스케어, 농업 등
신규 결합 서비스	인공지능 결합 통신 Integrated AI and Communication	센싱 결합 통신 Integrated Sensing and Communication	유비쿼터스 연결 Ubiquitous Connectivity
정의	분산 컴퓨팅과 AI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신규 서비스. IMT 시스템을 다양한 지능형 노드에서 데이터 수집, 분석 또는 분산 컴퓨팅으로 AI 모델의 분산 학습 및 추론을 활용하여 통신 서비스 이상의 놀라운 전문적인 사용 예를 제공	감지 기능이 필요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IMT 시스템을 활용하여 광역 다차원 감지를 제공하여 연결되지 않은 물체와 연결된 장치 및 그 움직임 환경에 대한 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연결성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시나리오. 원격 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교외 지역, 저연구밀도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함
사용례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의학 지원, 로봇 등	6G 기반 비계이전, 동작 및 모션 감지, 환경 감지, AI/VR/디지털 트윈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센싱 정보 제공	IoT부터 기본 광대역 서비스까지 포함



최광수/기자

충북도-LG엔솔, 미래 이차전지 선도할 스타트업 육성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벤처임대단지 조성 계획 포함

충북도는 미래 이차전지 시장을 선도할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오창 스타트업 Launchpad 2023 : 이차전지에 참여한 10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한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4개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사업의 지원금 지급을 위한 협약을 곧 체결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금년 선정된 스타트업은 이차전지 음극 소재 순수 실리콘 나노 분말(50-100nm급) 제조 기술을 보유한 에스엔퍼랩(주), 이차전지 용 CNT 도전재 분말, 분말용 플라즈마 표면처리 장비를 개발하는 이노플라즈텍 등이다.

충북도와 별도로 '충북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도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도 차세대 배터리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스타트업들에 힘을 보태기 위해 LGES 배터리 셀리지를 통해 배터리 소재와 셀, 팩,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BMS), 스마트팩토리 등 분야에서 혁신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를 낸 10개 스타트업을 뽑아 사업을 돕고 기술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충북도와 LG에너지솔루션의 모습은 왜 충북도와 LG에너지솔루션이 이차전지 1등 지자체이며 기업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배터리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코어가 되어 선도자(First-Mover)로서의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하게 하는 부분이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2월 산업부에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4개 산단, 약 14,609,355.4m²(약 442만평)를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했는데 그 중 신규로 조성되는 오창나노테크산단 내에 벤처

를 임대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충북도를 포함 5개 지자체가 신청한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결과는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이다.

고정화/기자



대전시, 4대 전략산업 우수기업 현장 탐방 실시

한남대학교 학생 및 관계자 25명, (주)트위니, (주)레고캠바이오사이언스 찾아

대전시는 22일 한남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청년이 지역에서 취업에 대한 희망을 찾고, 기업은 청년인재를 지역 내에서 찾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우수기업 현장 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우수기업 현장탐방에는 한남대학교 학생, 교수, 학보사 기자 등 25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대전시 4대 전략산업(나노반도체 · 바이오헬스 · 국방 · 우주항공 분야) 관련 우수기업인 (주)트위니와 (주)레고캠바이오사이언스를 찾았다.

(주)트위니는 지역의 나노반도체 분야의 중심 기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 산업혁명대상(2022) 수상했으며, 지난해 12월 행안부 장관이 방문하기도 했다.

(주)레고캠바이오사이언스는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각종 해외 기업과 기술이전 옵션 계약 체결하는 등 최근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다.

이날 현장탐방은 이석봉 시 경제과학부

시장과 청년들의 질의·응답으로 시작됐으며, 기업 관계자의 회사소개와 함께 복지제도, 인제상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으로 진행되며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은 "좋은 기업과 청년이 서로의 요구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좋은 기업은 청년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NH 농협

함께하는 100년 농협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

유통 혁신

'올바른 유통위원회, 출범을 통한 유통 구조 혁신과 함께 수급예측 정보시스템 구축, 농협을 경쟁력 강화로 농 축산물 유통 대변화'

디지털 혁신

농업인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통합 플랫폼 개발과 디지털 농업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농촌 지능화 등 디지털농업 강국 실현

조직문화 혁신

조직 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과 '경청'을 실천하고 창의적 생각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소통하는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

'태백가덕산풍력발전단지 2단계 사업' 준공식 개최

지난 22일 태백시는 강원도·태백시·한국동서발전(주)·코오롱글로벌(주)·(주)동성과 태백시민이 함께 참여한 태백가덕산풍력발전단지 2단계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상호 태백시장, 고재창 태백시의회장, 윤인재 강원도 산업국장, 이한영 강원도 폐광지역특위위원장, 김영문 한국동서발전(주) 사장, 김홍식 (주)동성 대표, 최재서 코오롱글로벌(주) 인프라본부 상무, 원동·상사미 통장과 지역주민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태백가덕산풍력발전단지는 총 사업비 600억원을 투자, '21년 6월 착공, 2022년 12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현재 태백가덕산풍력발전단지는 21MW급 발전 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태백시의 연간 전력사용량(약 31만MWh)의 16%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생산하고 있다.

시는 2단계 사업에 34% 지분을

출자, 발생하는 배당 수익은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 장학사업, 취약계층 복지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 사업 또한 27억원 규모 시민편드를 모집, 주민참여형 풍력 사업을 이끌어 냈고, 그 결과 지역주민에게 향후 20년간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태백가덕산풍력발전단지는 앞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3단계 사업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며, 태백시는 1단계 사업에 25억 원, 2단계 사업에 40억 원 등 총 65억 원을 투자하였고, 이로부터 15억 원의 배당수익을 받은 바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앞으로 주민 수용성을 기반한 풍력산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풍력발전에 따른 이익금을 오로지 태백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유상근/기자



서울시 '대사관연계 시민대학' 에티오피아 편 27일부터 모집... 대사와의 만남·커피체험 등

한-에티오피아 수교 60주년 맞아 에티오피아 강좌 풍성...7월 4일부터 4주간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이희승)이 운영하는 서울시민대학이 '2023년 대사관연계 시민대학' 두 번째 국가인 에티오피아 편 참가자를 27일부터 모집한다.

대사관연계 시민대학은 서울시가 외교부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글로벌 역량 프로그램'의 하나로, 각국 주한 대사관과의 연계를 통해 외교 정보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대사관연계 시민대학은 우리에게 커피로 익숙하지만 막상 쉽게 여행할 수 없던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를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됐다. 커피의 본고장인 만큼 커피체험부터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와의 만나 직접 소통하는 특별한 시간도 갖는다.

강의는 오는 7월 4일부터 25일까지 4주간 매주 화요일에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시민대학 본부캠퍼스에서 진행되며, 올해로 수교 60주년을 맞은 에티오피아의 외교현안부터 역사,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전문가 특강과 체험 활동 등이 다채롭게 열린다.

먼저 대사관연계 시민대학만의 특별한 내용으로 박윤래 외교부 아프리카 1 과장과 데시 달케 두카모(Dessie Dalkie Dukamo)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와 직접 만나 한국

과 에티오피아 외교 현안에 대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국제구호단체 '따뜻한하루'의 김광일 대표가 '253전 253승!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던 전설의 부대'를 주제로 에티오피아의 한국전 참전에 대한 역사 이야기도 전한다.

3회 차에는 tvN 역사예능 '별거벗은 세계사' 등에서 강의를 펼쳤던 아프리카 전문가인 황규득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학부)가 '에티오피아의 역사문화와 국내 및 지역 정체'를 주제로 에티오피아의 역사와 문화적 특징을 짚어준다.

마지막으로, 에티오피아 문화연구소 윤우순 소장은 아라비카 커피의 원산지인 에티오피아의 커피문화에 대해 인문지리학적 관점에서 알아보고 직접 커피를 체험해 볼 예정이다.

에티오피아 대사관연계 시민대학 수강인원은 30명이며, 27일부터 서울시평생교육포털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서울시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에티오피아 관련학과 재학생, 관련 직종 종사자 등 에티오피아 관련자는 별도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2023년 대사관연계 시민대학은 지난 5월 몽골 편을 시작으로 이번 에티오피아에 이어 오는 9월에는 캐나다, 11월에는 튀르키예 편이 순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동V터전 워크숍

최대호 시장,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안양시를 위한 지속적 관심" 당부

안양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연천군 백학자유리 리조트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60개 자원봉사단체의 70여명 및 동V터전 30명 등 100여명이 참가해, 특강 및 토론, 지역탐방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특강에서는 한국자원봉사학회 정진경 회장이 강사로 나서 '자원봉사의 가치 되살리기'를 주제로 열린 강의를 펼쳤고, 이후 참석자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각종 장애 대비 구역별 자원봉사자의 역할

등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워크숍에 참가한 한 단체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자원봉사의 핵심 가치와 리더로서의 역량을 되새겨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만족을 표했다.

최대호 시장은 축사를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역사회에 베풀어 주신 나눔과 봉사는 보다 충충한 복지 실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안양시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신유용/기자



'칠순 맞은 (주)청송동국 권오영 대표'

청송군인재육성장학금 1,000만원 뜻깊은 기탁

윤경희 청송군수, "뜻깊은 날 기탁금, 학생들이 소중한 꿈 키우는 밑거름에 사용"

청송군은 지난 17일, (주)청송동국 권오영 대표가 칠순을 맞아 (재)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권오영 대표는 "청송이 있기에, 이웃과 가족이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으므로 모두에게 감사하고, 낮은 곳에서 지역의 크고 작은 일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그동안의 관심과 애정에 보답하는 뜻으로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인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을 위해서 지역 곳곳에서 쏟아진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린다"며 "뜻깊은 날에 기탁해주신 장학금이 우리 학생들이 소중한 꿈을 키우는 밑거

름이 되도록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오영 대표는 (전)한국자유총연맹 청송군지회장,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의성지역협의회장 등을 맡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송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대전 시내버스·도시철도·타슈, 카드 한 장으로 환승할인 및 결제 가능

대전 시내버스·도시철도·타슈가 7월 초부터 티머니 카드 한 장으로 환승할인 및 결제 등이 가능해진다.

대전시는 23일 시민 교통편의 증진과 공공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대전형 통합교통서비스(MaaS)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이장우 대전시장, 민간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인 티머니(Tmoney) 김태국 대표이사, 대전교통공사의 연구양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통합교통서비스(MaaS : Mobility as a Service, MaaS)는 철도, 버스,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결해 최적경로와 교통수단 검색 및 통합 환승할인·결제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전시가 구축한 대전형 MaaS(MaaS)는 관광목적 등 일부 지역 운행을 대상으로 한 좁은 의미의 MaaS

(MaaS)가 아닌, 전국 최초로 시 전역을 운행지역 대상으로 공공·민간 융합형 MaaS를 구축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공공·민간 융합형 MaaS(MaaS)는 공공분야의 '데이터 플랫폼'과 민간의 '서비스 플랫폼'을 결합한 형태로, 민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전시는 우선 7월초부터 민간 모빌리티 플랫폼 '티머니GO'를 이용해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공유자전거 타슈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형 MaaS는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퍼(Play Store) 또는 앱스토어(App Store)에서 '티머니GO'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도시철도 등 3가지 교통수단을 연계·환승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또는 대중교통과 타슈 환승 시 마일리지 적립 혜택이 주어지고, 적립된 마일리지는 교통카드

충전, 타 교통수단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MaaS 플랫폼 이용자는 티머니에서 제휴하고 있는 일부 개인형이동수단(PM)도 연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급변하는 미래 교통환경에 대처하고 공공교통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출범한 '대전교통공사'로 타슈 업무가 이관되는 시점인 7월 초에 맞춰 추진된다.

앞으로 대전시는 시내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추진한 후 단계적으로 광역교통수단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티머니GO 대표이사 김태국 사장은 "티머니GO의 대전 진출은 티머니가 추구하는 '대중교통 중심의 통합이동 서비스'의 첫 지역 진출"이라며 "대전시, 대전교통공사와 적극 협력하여 대전 시민들에게 더 편리한 이동과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홍천군, 2023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홍천군은 6월 23일 오후 2시 행정상황실에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2023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노·사 대표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용자 대표위원(홍천군수 신영재)과 근로자 대표위원(공무직노조지부장 허두영)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1분기 산업안전보건 활동상황 및 3건에 대해 보고한 뒤,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 시행계획 외 3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또 안전보건관련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홍천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군 소속 현업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해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업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홍천군은 종합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군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각 부서에서는 소속된 현업 종사자들이 일하는 현장의 문제점을 잘 살피고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현장의 안전관리와 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세나/기자



'실'과 '천'을 소재로 한 금천구민



금천구를 대표하는 봉제산업 뜻하는 '실'과 '천'을 소재로 한 문화예술교육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금천문화재단은 6월 27일부터 구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천=력'의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실×천=력'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2023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꿈다락 문화

예술학교' 프로그램 중 하나다. 금천지역을 대표하는 봉제산업을 의미하는 '실'과 '천'을 소재로 총 4개의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인 △ 천으로 알다(시각예술) △ 천으로 엮다(응용미술) △ 천으로 놀다(연극) △ 선, 울 그리

고 화음으로 표현하기(음악) 등을 운영한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천으로 알다'는 천을 자르고 붙이는 시각예술의 과정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공간과 세계를 표현해보고, 지역을 깊이 탐구해본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천으로 엮다'는 나만의 이야기가 담긴 형질 그림책을 만들어보는 응용미술의 과정이다. 참여자들은 수공예적 감성과 상상력을 담은 나만의 작품세계를 표현할 수 있다.

가족 단위 대상으로 하는 '천으로 놀다'는 가족 이야기를 소재로 인형극을 함께 만들면서 세대 간 친밀감을 형성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

울, 그리고 화음으로 표현하기'는 음악을 통해 다른 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예술적 감수성을 표현하는 과정이다. 작곡을 배우지 않고, 악기를 다루지 못해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7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하며, 금천문화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별 운영 요일과 모집대상이 다르므로 신청 시 반드시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오진이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교육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를 고려한 맞춤형 특화 문화예술교육"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주민이 예술을 통해 교감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향신/기자

성북시티투어, 버스 타고 도심 속 힐링여행 떠나요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느낌따라, 취향따라 즐길 수 있는 테마여행



서울 성북구 새롭게 6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성북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한다. 성북 곳곳에 숨어 있는 역사 문화재를 즐길 수 있는 3가지 테마별 코스로 시티투어를 진행한다.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다채롭고 실감 나는 이야기가 어우러져 더욱 즐거운 여정이 될 예정이다.

목요일 코스 '청와대와 성북 가는 길'은 북악스카이웨이의 멋진 드라이브 길을 지나 청와대를 관람한다. 최순우 옛집, 심우장, 길상사 등 성북동의 역사 문화재를 찾는다.

토요일 코스 '성북 역사문화'는 한양도

성 길을 걷고, 심우장, 이종석 별장, 최순우 옛집, 길상사를 찾아 성북동을 만끽한다.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고고, 민속, 미술에 이르는 다양한 소장품을 관람한다.

일요일 코스 '가족힐링투어'는 조선 경종과 그의 계비의 능인 의릉을 관람하고 둘레길을 산책한다. 이종석 별장, 길상사, 수연산방 등 성북동의 역사문화 명소를 찾는다. 또한 우리옛돌박물관에서 석조유물과 전통 자수, 근현대 한국회화를 통해 선조들의 삶의 철학과 지혜를 알아본다.

성북시티투어는 로망스투어 홈페이지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이용요금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코스마다 차이가 있으며 방문지 입장료가 포함됐다.

자세한 사항은 로망스투어 공식 홈페이지 성북시티투어 카테고리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성북역사문화센터, (주)로망스투어로 전화 문의의 가능하다.

강성원/기자

송파구, 지방보조사업 운영 투명성 높인다! 구립 사회복지시설 30개소 대상 행정컨설팅 최초 실시

서구청장 "구립시설 대상 행정컨설팅 제공으로, 공공성 및 투명성 높여 청렴문화 확산"

송파구가 관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구립 어린이집, 키움센터, 노인복지관 등 30개소를 대상으로 행정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는 사회복지시설이 지방보조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도록, 올해 처음으로 행정컨설팅을 도입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행정적 주요 역할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후대까지 생 각한 공익사업을 펼치는 것"이라며 "민선8기 세부사업이 본격 시작하는 올해, 올바른 예산집행으로 구민들에게 최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첫 시행인 만큼, 구는 구립운영시설에 우선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구립 어린이집 10개소, 노인복지시

설 및 데이케어센터 10개소, 키움센터 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점차 민간운영 기관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컨설팅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행정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컨설턴트가 수행한다. 컨설팅 제공범위는 시설운영, 종사자 관리, 회계 관리, 기능보강 사업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사항 전반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컨설턴트가 각 시설에 방문해 재무, 노무 분야 등 운영사항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시정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즉시 파악한다.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수범사례를 널리 전파해 사회복지시설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컨설팅은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보다는 원인 분석을 통한 개선에 무게를 둔 방침이다. 관내 사회복지



시설의 행정력 강화로,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과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집행을 독려해나갈 계획이다.

구는 오는 9월까지 행정컨설팅을 모두 마치고, 향후 유사한 사례로 고민하는 기관을 위해 '컨설팅 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할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어려운 환경

에서도 살맛나게 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각 기관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행정적인 고민을 해결하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여나갔겠다."고 전했다.

이흥수/기자

강남구, '강남메디컬투어센터' 재개관

4개 국어 가능 직원 상주해 픽업·랜딩, 통역, 숙박, 쇼핑 연계 등 강남표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22일 압구정로 161에서 강남메디컬투어센터(GMTC)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식에는 (사)강남구의료관광협회, 의료관광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센터에는 영어·중국어·일어·러시아어 등 4개 언어를 구사하는 직원 11명 상주하며 1:1 맞춤형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픽업·랜딩 서비스와 통역, 숙박 및 쇼핑을 연계하는 강남만의 원스톱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의료관광 협력기관 및 의료관광

객의 비즈니스 미팅 및 화상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를 갖췄다. 커뮤니티룸에서는 의료관광 관계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새롭게 거듭난 강남메디컬투어센터에서 의료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최고의 서비스와 최첨단 시설을 갖춘 강남 의료관광이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2026년 의료관광객 15만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서초구, 육아달인 아빠되기 '쉽표아빠 똑똑아빠' 프로그램 운영

서울 서초구가 다음 달 13일까지 남성 양육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육아스킬을 공유하는 '쉽표아빠, 똑똑아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초구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초보 아빠를 위한 △예비 및 영아 아빠 편과 △유아, 아동기 아빠 편의 2개 반으로 양육자의 육아 경험과 스킬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됐다.

먼저 '예비 및 영아 아빠 편'은 예비 아빠 및 2021년~2023년생 자녀를 둔 남성 양육자가 대상이다. 지난 21일 신생아, 영아의 이해 및 놀이코칭과 드림캐쳐 만들기를 시작으로 △27일 단계별 이육식 교육과 만들기 실습 △7월 4일 아동 위생관리·기저귀 갈기 및 목욕 △7월 11일 신체별 베이비 마사지·천연립밤 만들기까지 총 4회 진행된다.

'유아, 아동기 아빠 편'은 성장하는 자녀의 발달 수준에 맞춰 향상된 육아스킬 취득을 원하는 남성양육자를 대상으로 지난 22일 정리 및 살림의 기술·친환경 세계 만들기 교육을 진행했으며 △29일 아동 식사예절 법·건강요리 만들기 △7월 6일 응급처치교육과 심폐소생술 △7월 13일 양육 스트레스 검사 및 코칭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교육 참여자들 간 육아 정보 공유와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한편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지난 2020년부터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30만원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남성 양육자와 아동이 함께하는 교

구, 다음 달 13일까지 남성 양육자를 위한 '쉽표아빠, 똑똑아빠' 프로그램 진행

육·문화 체험활동 '서초프렌다' △남성 양육자의 역량 강화와 스트레스 해소를 돕는 '서초힐링데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빠 육아의 활성화와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이돌봄 특화사업으로 만 24개월 이하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 상당 지원 및 양육방법을 교육하는 '서초손주돌봄 지원사업' 등 육아지원사업과

함께 지난 10일에는 500여 명의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온 가족이 즐거운 체험활동을 즐기는 '서초가족 피크닉' 행사를 여는 등 가족친화적인 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부모님들이 겪고 있을 양육의 어려움 해소와 함께 자녀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흥수/기자



은평구, 친환경 방제로 봉산 대벌레 떄 '씩'... 개체수 절반 감소

친환경 방제 이후 전년 대비 대벌레 개체수 52% 감소



서울 은평구는 친환경 방제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인 봉산 일대의 대벌레 개체수가 전년 동월 대비 52% 감소했다고 밝혔다.

해충으로 분류되는 대벌레는 지난 2020년 봉산 일대에 떼로 출몰하며 주민 불편을 일으켰다. 대벌레는 연 1회 발생하며 3~4월 부화해 성충이 되면 11월까지도 생존한다.

대벌레 출몰 이후 구는 봉산 일대에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대벌레를 방제할 수 있는 '친환경 방제'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여 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 산림청 산림병해충 방제 모범사례에도 선정됐다. '친환경 방제'는 농약 사용 위주의 화학적

방제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벌레를 포획하거나, 알 부화와 월동 장소가 되는 낙엽 등을 정비하는 방제법이다.

구는 올해 대벌레알이 본격적으로 부화하기 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0여 명을 구성해 방제 준비를 마쳤다. 약충 초기인 지난 3~4월에는 끈끈이 롤트랩을 이용해 친환경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약충 중기인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나무병원과 협업해 전문성을 높인 방제 활동을 벌였다. 성충기인 오는 7월 이후에도 약제 살포가 아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직접 대벌레를 포획할 계획이다.

구는 대벌레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4월 3주차에 한국임업진흥원과 봉산 해맞이 공

원 일대에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대벌레 부화시기와 발생 밀도를 살펴본 결과, 대벌레 개체수가 전년 동월 대비 약 52%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겨울 기온이 낮은 영향도 있지만 2020년 대벌레 떄 출몰 이후 현재까지 은평구가 선제적으로 산림생태계를 고려한 친환경 방제 활동을 진행함에 따라 대벌레 개체수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으로 구는 봉산 산책로 일대에 대벌레의 천적으로 알려진 풀잠자리류 등이 서식할 수 있는 소규모 '비오톱'(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 장소)을 조성할 예정이다. 생태적 방제는 물론 봉산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학습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구는 벌레에 대한 친환경적 방제 방법을 체계화하기 위한 자체 지침서를 제작해 향후 돌발해충 방제 모형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구는 건강한 생태계와 꿀벌 보호를 위해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사용을 전면 중지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농약 사용 위주의 방제에서 벗어나 친환경 방제를 통해 생태계 건강성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늘어나는 돌발해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친환경 방제와 함께 탄소 중립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소유, 7월 여름 가요계 컴백 확정! 15개월 만 신보

가수 소유가 7월 가요계에 합류한다. 22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커는 "소유가 오는 7월 새 앨범을 발매하고 컴백한다. 소유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올해 4월 디지털 싱글 '우리는 매일 이별을 향해 걸어가지'로 짙은 감성을 들려준 소유가 3개월 만에 빠르게 컴백한다. 여름 시즌에 맞춰 소유가 어떤 콘셉트의 음악과 무대를 선보일지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앨범 단위로 지난해 4월 발매한 미니 1집 'Day & Night (데이 앤 나이트)' 이후 1년 3개월 만이라 기대감이 남다르다. 소유는 이에 보답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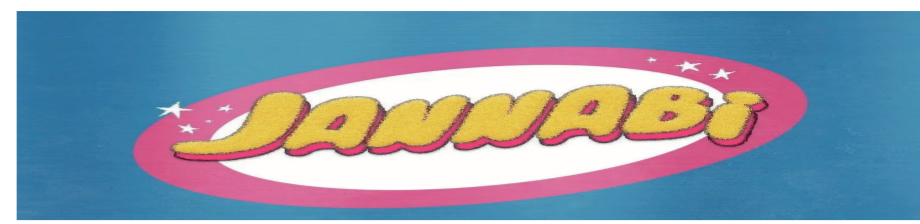
자 앨범 막바지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편, 소유는 자신의 음악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아티스트다. 최근에는 '조선번호사' OST '시간을 돌려서'에도 가장으로 참여했다.

또한, 공식 유튜브 채널 '소유기'를 통해 고정 토크쇼 '혼저옵소유'를 비롯해 브이로그와 비하인드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공개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소유의 새 앨범은 7월 중 발매되며, 추후 순차적으로 티징 콘텐츠를 공개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잔나비, 21일 신곡 'pony' 발매...아날로그 감성 더한 '올드팝'

그룹사운드 잔나비가 신곡 'pony'로 리스너들과 추억 여행을 떠난다. 잔나비는 21일 오후 6시 전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헤리티지 뮤직 프로젝트' 음원 'pony(포니)'를 발매한다.

'pony'는 보컬 최정훈의 어린 시절과 어머니와의 추억을 함께 그려낸 곡이다.

옛 시절 어머니의 애창곡들부터 자동차 뒷좌석에서 들던 노래들로 품게 된 싱어송라이터의 꿈까지 소중한 추억을 회상하며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잔나비가 'pony'로 공유할 익숙한 여정은 과거를 기억하는 세대에게는 향수를 자극하고, 요즘 세대에게는 아날로그 감성을 선사하며 신선한 매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음원과 함께 공개되는 뮤직비디오 또한 최정훈의 경험과 인터뷰를 충실히 담아내 본편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7080 서울의 모습은 물론 영상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따뜻한 아날로그 감성은 보고 듣는 이들에게 시간 여행을 하는 즐거움을 선사할 계

획이다.

과거를 추억하게 하는 오브제이저 힘의 순간에도 최정훈이 앞으로 나아가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어준 물건들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도 뮤직비디오 본편의 감상 포인트라 할 수 있다.

잔나비의 'pony'는 현대자동차와 협업한 '헤리티지 뮤직 프로젝트' 음원으로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기억 속 앞으로의 삶을 지탱하고 나아가게끔 하는 가치인 헤리티지를 재조명하는 음악 프로젝트다.

잔나비는 'pony'를 통해 또 한번 리스너들의 감정을 어루만지며 저마다의 헤리티지를 찾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정서를 보낼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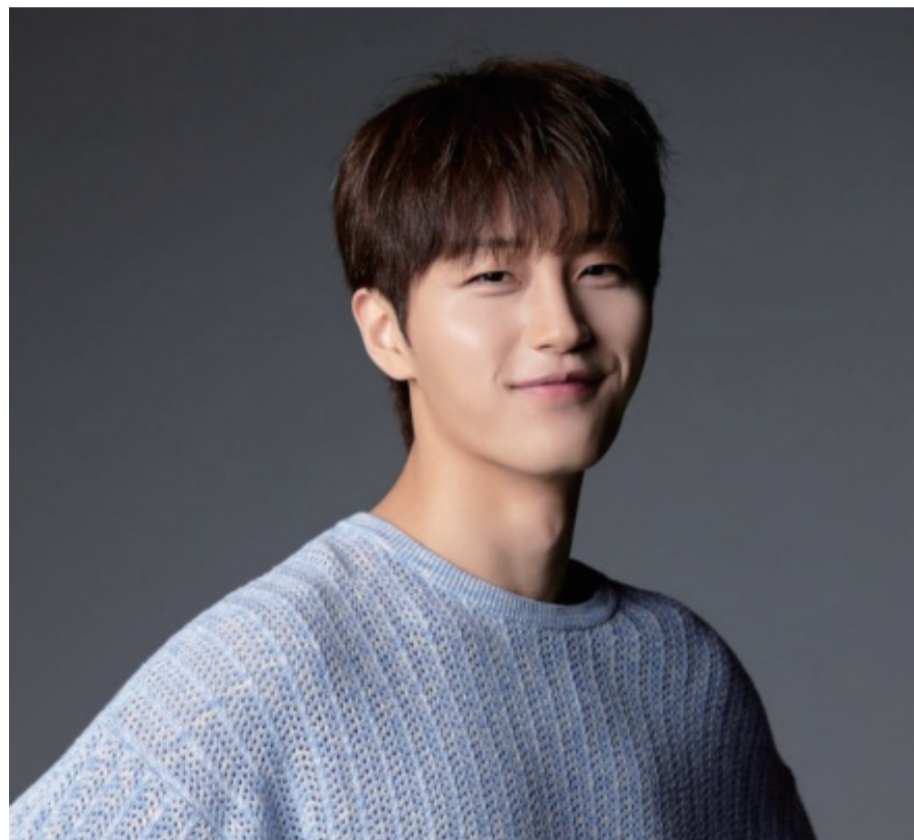
먼 과거의 추억에서 출발해 잔나비의 선명하고 짙은 감성으로 완성된 'pony'는 21일 오후 6시 전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한편 잔나비 최정훈은 KBS 2TV '더 시즌즈-최정훈의 밤의 공원'의 공원지기로 활약하며 깊이가 다른 음악 이야기와 반전 매력으로 다채로운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박종배/기자



하중우, tvN '소용없어 거짓말' 합류! 김소현X황민현과 호흡



'떠오르는 신예' 하중우가 tvN '소용없어 거짓말'에 합류했다.

하중우의 소속사 스튜디오 에프는 22일 하중우가 tvN 새 월화드라마 '소용없어 거짓말'(연출 남성우, 극본 서정은,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빅오션이엔엠)에서 라이어 헌터 목솔희(김소현)의 경호원 '백치훈' 역을 맡았다고 밝혔다.

'소용없어 거짓말'은 거짓말이 들리는 능력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는 라이어 헌터 목솔희와 말할 수 없는 정체를 숨긴 천재 작곡가 김도하(황민현)가 만나 펼치는 진실 탐지 로맨스다.

하중우가 연기하는 백치훈은 사람을 믿지 않는 목솔희가 누구보다 신임하는 경호원이다. 말은 임무를 성실하고 든든하게 수행하는 '프로' 경호원이지만, 그 외 분야에서 다소 허술하고 엉뚱한 면모가 흥미롭다.

보기만 해도 기본이 좋아지는 해맑은 미소만큼이나 뇌까지 해맑은 반전 매력의 소유자로, 샤운(이시우)의 '덕

질'에도 누구보다 진심이다. 하중우는 '백치훈'의 반전 매력을 극대화하며 활기와 설렘을 불어넣는다. 특히 '목솔희' 역의 김소현과의 티키타카에도 기대가 쏠린다.

하중우는 "'소용없어 거짓말'에 참여하게 돼 너무 꿈만 같고, 좋은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다. 작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백치훈이란 인물을 어떻게 그려나갈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우아한 거짓말', '한 여름밤의 꿈', '날 보러와요' 등 연극 무대에서 탄탄한 연기력을 쌓아온 하중우는 웹드라마 '펜스 밖은 해피엔딩', '파트타임 멜로' 등을 통해 대중의 눈도장을 받았다.

이번 '소용없어 거짓말'에서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줄 하중우의 연기 변신이 기대를 모은다.

한편, tvN 새 월화드라마 '소용없어 거짓말'은 오는 7월 31일(월) 저녁 8시 50분 첫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이병헌, 다이내믹 듀오 정규 10집 Part.1 'Intro' 내레이션 녹음+집필 참여!

배우 이병헌이 힙합 듀오 다이내믹 듀오의 정규 10집 인트로 내레이션을 맡았다.

다이내믹 듀오(개코, 최자)는 지난 21일 오후 아메바컬처 공식 SNS를 통해 정규 10집 첫 번째 디지털 싱글 '2 Kids On The Block - Part.1'(투 키즈 온 더 블럭 파트 원)의 1번 트랙인 'Intro (Narration by 이병헌)'(인트로)의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이병헌은 녹음뿐만 아니라 최자와 함

께 스크립트 작성까지 직접 맡아 다이내믹 듀오와 힙합 팬들에게 남다른 선물을 전했다.

공개된 티저 영상은 다이내믹 듀오의 음악 작업 공간을 배경으로 한다. 이병헌 특유의 중후한 보이스로 펼쳐지는 "독서실을 뒤로하고 선선한 바람이 불던 어느 여름 새벽에 친구와 난 음악 애기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견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

히 뜨겁게 진행 중이다. 1998년의 어느 늦은 여름밤 그날처럼"이라는 한 편의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앨범 본편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고조시킨다.

'2 Kids On The Block - Part.1'은 다이내믹 듀오가 4년 만에 발매하는 열 번째 정규앨범의 첫 번째 싱글이다. 정규 10집의 포문을 여는 'Intro'에 이어 타이틀곡 '19'와 '하루종일', '피리부는 사나이'(Feat. dj friz)', '시간아 멈춰 (Feat. Leellamarz)'까지 개코와 최자가 기획

부터 진두지휘한 총 5곡이 수록된다.

다이내믹 듀오의 '2 Kids On The Block - Part.1' 전국 음원은 오는 23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한편, 이병헌은 8월 개봉하는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또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시즌2' 출연을 확정 짓고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간다.

최만식/기자

Everywhere Green Life, H₂ KOGAS
KOGAS가 만들어가는 Fill · Feel · 必

KOGAS가 FEEL합니다

더 깨끗한 세상을 위한 KOGAS의 ESG
KOGAS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행복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
KOREA GAS CORPORATION

제53회 경상북도 공예품대전 개최, 작품 전시해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많은 공예품 전시에 관심부탁"

경북도는 지난 16일 '제53회 경상북도 공예품대전'에서 대상작으로 박승일(백암요) 작가의 '동해(東海)'를 비롯한 54점의 작품을 선별하고, 지난 22~25일까지 4일 동안 안동문화예술포럼에서 전시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 공예품대전은 올해 53회째로 우수공예품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도내 공예산업 기반강화를 목적으로 경북도와 대구경북경제협동조합이 주최·주관해오고 있다.

이번 공예품대전에는 지난 13~14일 이틀간 총 83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20여점 더 늘어난 것으로 도내 공예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으며, 작품 수준 또한 예년보다 높다는 심사위원의 다수 의견이다.

공예품대전 심사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10명의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 1점(500만원), 금상 1점(250만원), 은상 3점(150만원), 동상 4점(100만원), 장려상 5

점(50만원), 특선 11점, 입선 29점을 포함해 총 54점의 우수한 작품이 입선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박승일(백암요) 작가는 동해의 힘찬 기상을 메시지로 전달하고자 청화 기법을 이용해 푸른 동해를 작품에 담았다고 전하면서 동해의 핫그릇을 통해 지친 현대인들의 일상에 위안과 평안을 기원한다고 했다.

시상은 지난 23일 안동문화예술포럼 전당에서 진행됐으며, 특선 이상 수상작 25점은 제53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의 출품자격이 주어졌다.

또 동상 이상 수상자 중 사업자 등록한 업체에게는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지원장려금 200만원이 지급됐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공예품대전을 계기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공예산업이 활성화되길 바라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공예품이 많이 출품됐으니 전시기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남도 박완수 도지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현장 지원

윤석열 대통령 주재 프랑스 파리 BIE 총회 대한민국 공식 리셉션 참석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프랑스 방문 경남대표단은 파리에서 개최된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현장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172차 총회는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국 선정을 위한 후보지 프레젠테이션과 공식 리셉션 일정으로 진행됐다. 20일에는 17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부산세계박람회의 전략과 비전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 다음 날인 21일에는 부산세계박람회 대한민국 공식 리셉션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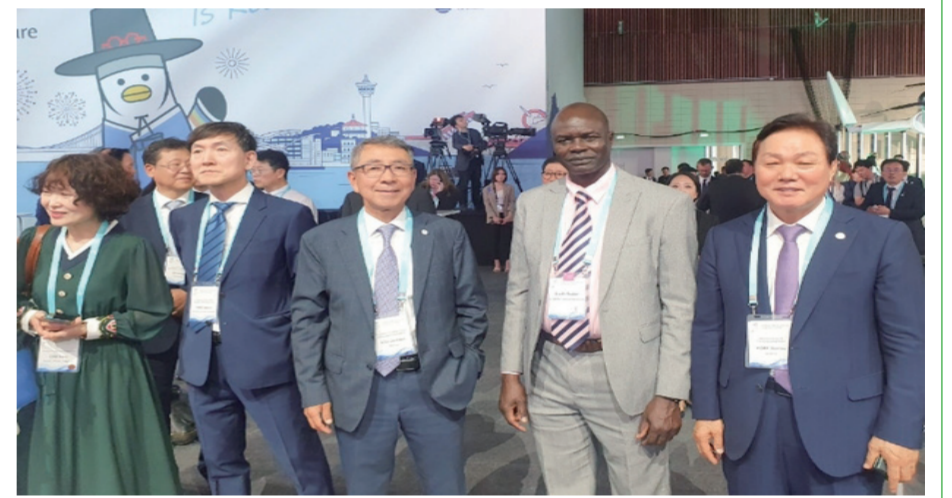
박 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유일하게 후보 도시인 부산시장과 함께 공식 리셉션에 참석했다. 특히 경남상공계를 대표해 구자천 경남상공회의소회의회장도 참석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힘을 보탰다.

유치 지원에 나선 박 도지사는 남수단, 독일 등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의 대표단과 외교단을 상대로 국제행사를 치른 부산의 경쟁력을 소개하는 한편,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함께 표했다.

박 도지사는 "경남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산업 수도이자 부산과 가장 인접한 지방정부"라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도내 전시시설 지원, 자원봉사단 구성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우크라이나(오데사)가 후보지로서 제외됨에 따라 2030년 세계박람회 후보지는 대한민국(부산)을 포함해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탈리아(로마) 3개국으로 압축됐다.

장재현/기자



영덕문화관광재단, 2023 영덕 문화재 야행 개최

영해 1924, 그날 밤을 거닐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은 다음 달 14~16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2023 영덕 문화재 야행'을 개최한다.

'2023 영덕 문화재 야행'은 문화재청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이며 올해는 '영해 1924 그날 밤을 거닐다'라는 주제로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100년 전 영해의 모습을 재현하게 된다.

이번 행사가 열리는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공간'은 2019년 등재된 국가등록문화재이다. 이곳은 1871년 최초의 농민운동인 영해동학혁명, 평민 의병장 신돌석 장군의 항일투쟁, 1919년 최대

규모의 3.18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장소로서 조선시대 읍성의 흔적과 함께 근대 한국인의 장터거리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을 거닐며 한 여름밤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거점마다 아름다운 조명과 조형물을 조성하고, 야경(夜景) 야로(夜路) 야사(夜事) 야화(夜畵) 야설(夜設) 야식(夜食) 야시(夜市) 야숙(夜宿) 등 8개 중목 19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와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영덕문화관광재단 담당자는 "여름 밤 별빛 아래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문화재 야행은 우리 영덕군의 특색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주요 관광 행사로 발전시킬 것"이란 포부도 밝혔다.

장문화/기자



극단거창,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 30일 개막

살인을 지령하는 스틸러 작품

거창군은 '2023년 제5회 극단거창 정기공연'이 오는 6월 30일 오후 7시 30분, 7월 1일 오후 3시 2일간 거창문화원 상설미홀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연극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는 1948년 루실 폴리처의 작품으로 미국 라디오 방송극 드라마로 크게 성공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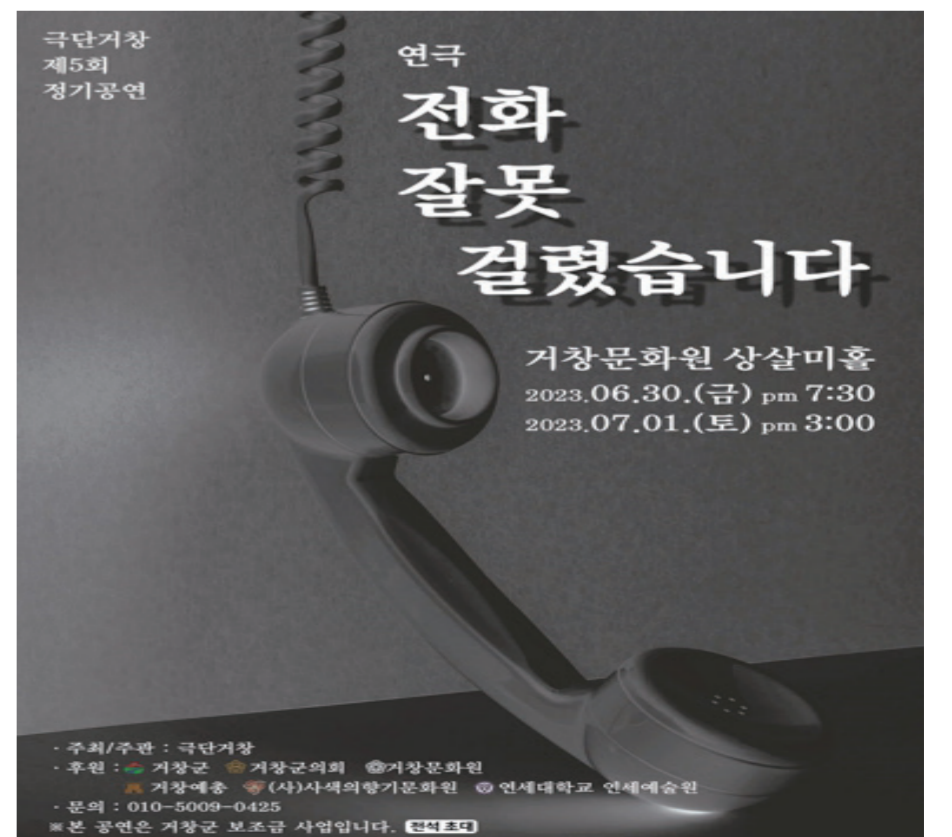
1970년대 한국에서 처음 라디오 방송을 탔을 때 '손에 땀을 쥐게 한 미스터리 스틸러'로 지금까지도 60~70대 애청자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만큼 당시 성황했으며, 짜임새 있는 구성과 함께 서로에 대한 배려와 관심, 진정한 소통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작품이다.

공포를 주제로 한 연극으로 영화나 방송과는 다른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으며, 거창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연극 공연을 연출한 신성구 극단거창 대표는 "공포를 다루는 작품인 만큼 배우들의 작은 숨소리, 눈빛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새로운 무대를 기획하고 있다"라며 "놓치면 아까운 공연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극단거창은 전문연극인과 지역민들이 중심이 된 순수 민간 연극단으로 2017년 창단 공연 '타이거'를 시작으로 2020년 '러브앤타임', 2021년 거창사건 70주년 추모연극인 '산 66-6', 2022년 '거창한 로맨스' 등 4편의 정기 공연을 가졌다.

장병철/기자



미디어아트 세계 최고 권위 오스트리아 '프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서울문화재단 지원작가 김아영 골든 니카(최고상), 상희 특별상 영예

오스트리아 '프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매년 미디어아트 우수성과 낸 인물 선정

서울문화재단의 2022년 각 분야 지원사업에 선정된 김아영과 상희가 디지털 예술의 허브이자 대표 시상식인 '프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Prix Ars Electronica) 2023'에서 최고상 '골든 니카(Golden Nika)'와 '특별상(Award of Distinction)'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오스트리아 현지시각으로 지난 12일 알려졌다. 시상식은 오는 9월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열릴 예정이다.

98개국 3,176개의 프로젝트가 제출된 '2023 프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에서 한국 예술가들이 '뉴 애니메이션 아트(New Animation Art)' 부문 대상 '골든 니카'와 '특별상'에 선정됐다. 해당 부문 참가자 1,116명 중 재단의 예술지원 받은 작가가 1, 2등을 휩쓴 쾌거로, '골든 니카'상을 한국인 작가가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는 1979년부터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1987년부터 '프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시상식을 운영해오고 있다. 공모전은 ▲뉴 애니메이션 아트, ▲디지털 뮤직 & 사운드 아트, ▲AI & 라이프 아트, ▲u19-create your world(오스트리아 거주 19세 이하 유소년 아이디어 지원 분야) 등 총 네 개 부문으로 이루어졌다. 각 부문에서 디

지탈 예술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기도 하는 대상 '골든 니카(Golden Nika)'와 '특별상(Award of Distinction)', '영예상(Honorary Mention)'을 시상한다.

시상식은 오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열리는 '2023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2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 지원, 예술기반지원 등 재단 지원사업에 다수 선정돼 온 김아영(Ayoung Kim) 작가의 '딜리버리 댄서의 구(Delivery Dancer's Sphere)'가 '골든 니카'를 수상했다.

김아영 작가는 현 융합예술 창·제작 지원사업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서울문화재단의 2008년 젊은 예술가 지원 'NArT'를 시작으로, 2014년 유망예술지원(MAP) 선정예술가로 활동했다. 또 2012년과 2013년, 2018년, 2022년 예술창작활동지원(시각), 2021년, 2022년 예술기반지원사업(RE:SEARCH 등)에 선정되며 꾸준히 본인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했다.

'딜리버리 댄서의 구'는 가상의 서울을 배경으로 끊임없이 갱신되는 배달업의 내비게이션 미래에 갇힌 채 질주하는 여성 배달 라이더를 주인공으로 제작된 '팬데믹 픽션' 영상 작품이다. 서울문화재단

과 갤러리 현대의 후원으로 제작됐다.

서울문화재단의 '언폴드엑스(UnfoldX)'로 데뷔한 상희 작가의 데뷔작 '원룸바벨(Room-Babel)'은 특별상을 수상했다.

상희(SANGHEE, 본명 이상희) 작가의 수상작은 지난 2021년 서울문화재단의 융합예술 창·제작지원에 선정돼 2022년에 제작한 작품으로 지난 11월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진행된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 2022' 전시를 통해 처음 선보였다.

'원룸바벨'은 가상세계(VR) 장치를 통해 만나는 동명의 바다속 가상 건축물에서, 거주자들의 주거 공간을 차레로 방문하며 원룸에 거주하는 청년들과의 인터뷰와 작가의 문장을 마주하는 작품이다.

상희 작가의 이번 수상으로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는 국내를 대표하는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 페스티벌로 다시 한 번 자리매김하게 됐다.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 2023'은 오는 11월 10일 문화역서울 284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신규 선정작가와 국내·외 초청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2회차를 맞는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 2023'은 작년보다 전



영양 들여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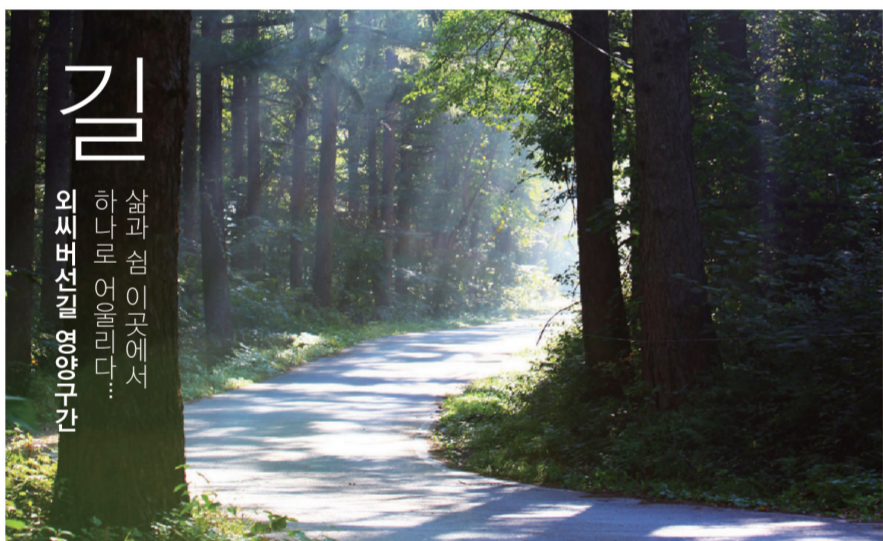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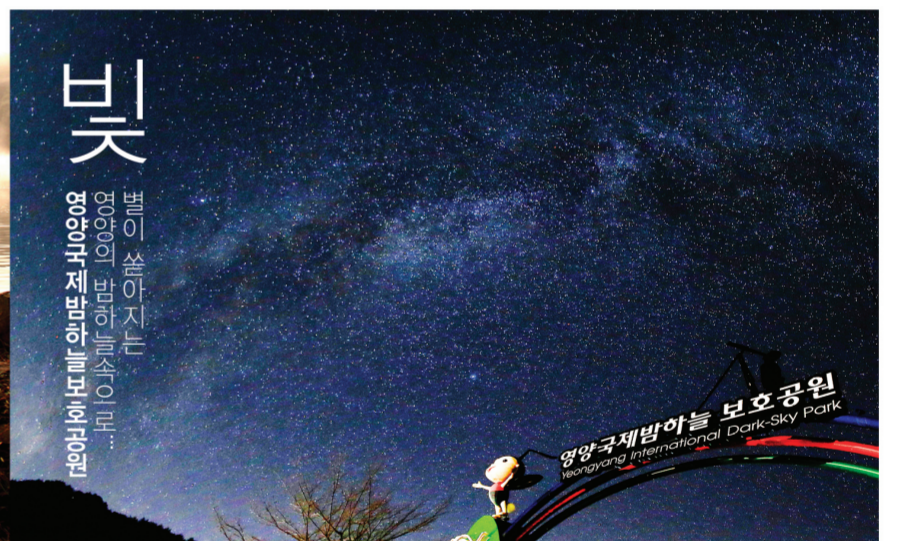
길

살과 숨이 곳에서
하나로 어울린다...
외씨버선길 영양나들이



물

영양의 휘날리는
이슬과 바람을 따라...
영양고추밭이 낚시터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의 밤하늘을 즐기면...
영양국제밤하늘보존지구공원



얼

시몬학의 대가
석문포 정호봉 서평의 정호봉...
영양서적지



맛

사백년들이어린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포서정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존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